

미국 플로리다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칭하이 무상사

파나마

전세계 재난 구호 특별호

뉴스잡지 154호

아이티

스승의 힘을 확고히 믿고 신의 복음을 전하라

칭하이 무상사/ 1994. 9. 3. 미국 하와이 단체명상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42

이 세상은 이 행성 사람들의 심리적 기대나 삶에 대한 태도에 따라 늘 변합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방법은 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미 신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가든 오든, 머물든 신께 돌아가든 다 괜찮습니다. 최소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긴 해도 우리는 때로 형제자매들을 위해 신의 은총을 받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 어서 그 방법을 안내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진리를 전하고자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오직 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신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신이 언제나 우리의 집과 육신을 보호해 줄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무상한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진 후에 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릴 구원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온 우주를 돌보실 수 있으므로 여러분 정도의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우주의 힘, 무상사의 힘이 모든 일을 행하고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칭하이 무상사의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은 2001년 5월 포모사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많은 시청과 폭넓은 일반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4년 10월 17일부터 CTI 오락방송국을 통해서도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수신 지역: 포모사

채널: CTI TV

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8:30~9:00

내용: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 비디오, 예술 창작품, 생애 소개와 함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전세계 활동 보도

언어: 영어, 중국어 (내레이션 + 자막)

CTI TV의 포모사 내 방송 주파수에 대해서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ctitv.com.tw/new/location/location.html>

포모사 이외의 다른 국가와 지역은 CTI TV 방송 지역과 수신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ctitv.com.tw/new/international/index.html>

<http://www.ctitv.com.tw/new/international/resive.html>

<http://www.sat-address.com/cc/CTI-TV-Int.html>

Sun TV 방송 시간대는 종전대로 일요일 낮 12:30~1:00에 방송됩니다.

TV 방송용 '예술과 영성' 비디오테이프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통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칭하이 무상사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의 최근 방송 시간표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broadcast.htm (중국어, 영어)



차례

앞표지 안/ 스승님 말씀
스승의 힘을 확고히 믿고 신의 복음을 전하라

앞표지 안/ 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포모사

2 다채로운 이벤트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포모사/ 홍콩/ 대한민국/ 몽골

10 행사 메모

11 시

12 / 30 스승과 제자 사이
발렌타인데이에 찾은 나의 영원한 연인/
감사하는 마음

13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상의 지혜를 얻는 유일한 법문/
대대로 내려온 유전적 흔적을 씻어내는 방법

16/ 49/ 뒤표지 안 영혼의 고양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CD/ MP3/ 책

17 수행의 길목에서
스승님이 가져다주신 사랑

19 골라 뽑은 수행문답
신과 하나가 되어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음을
알라/ 환경 보호에 힘써 지구를 구하라/
세속을 버리는 것은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다르다/
고행은 업장을 소멸시킬 수 없다/
깨달음은 우리에게 내재된 치유력을 일깨운다

24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오리 도둑의 참회

25 제일선에서
황금시대 원년의 영성 축제, 2004 타이난 도서 박람회

31 스승님의 농담
억울하게 맞아도 고마워/ 당신말고 당신 ‘말’이 필요해!/ 죽어도 구두쇠 기질은 못 버려

32 신기한 감응
구사일생의 사건이 마을의 영성 고양을 이끌다

33/ 37/ 63 매체보도
애원동물의 예방 접종, 1년에 한 번은 너무 잦다/
채식: 전세계의 물 부족 위기에 대한 최상의 방안/
깜짝 소식: 남극의 오존층 구멍이 줄어들었다!/
34 이야기 세상

34 이야기 세상
초창기 사제지간의 이야기-사제간의 신성한 사랑

38 자연 속에 담긴 이치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은 인류 생존의 근본이다

39 사제지간의 편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이가 스승께 감사드리며

40 사랑의 실천
포모사/ 중국/ 인도/ 러시아/ 그레나다/ 자메이카/
일본/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파나마/
2004년 9월과 10월 청하이 무상사의
전세계 재해 구호 활동 지원 지출 일람표

40/ 58 감사 편지
포모사/ 도미니카 공화국

67 관음 웹사이트

68 전세계 연락처

출판일자 : 2005. 1. 14.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54호**

싱가포르 소식

건국 기념일 축제에서 영성을 일깨우다

싱가포르 뉴스그룹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는 2004년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건국 39주년을 기념하는 ‘불꽃 축제 및 연안 카니발’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관음법문을 접해 스승님의 가르침에 큰 감명을 받은 한 조직 위원은 이 행사에 싱가포르 센터를 초대해 스승님의 높은 가르침을 많은 대중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수행 단체가 음식이나 계임을 제공하는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부가 후원하는 오락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이례적인 기회였다. (사실상 우리 단체는 이 행사에 참여한 유일한 수행 단체였다.)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건국 기념을 경축하면서 국민들에게 물질적인 음식과 여흥뿐 아니라 영성의 음식까지 잊지 않고 제공했다.

우리 부스는 행사장 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운집하는 콘서트장 입구의 오른쪽 바깥쪽에 위치한 대형 천막 안에 설치되었다. 이에 수천 명의 행인들이 연꽃 위에서 명상하는 스승님의 아름다운 대형 법상을 보고 그 신성한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다. 우리는 또 스승님의 강연 DVD를 연속해서 상영하는 한편 스승님의 출판물과 그림, 만세등, 천의도 함께 전시했다.

축제 기간 동안 사형사저들은 수천 장의 전단지를 쿠키 봉투와 함께 나누어 주었다. 쿠키 봉투 안에는 스승님의 감로법어도 한 장씩 들어 있었다. 선물을 받은 많은 방문객들이 그 즉시 전단 내용을 읽어 보는 등 영성 계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 맞은편 부스의 영업 사원은 스승님의 법상을 보고 견본책자를 읽기 시작했는데, 견본책자를 읽을 때 책에서 두 개의 동그란 빛을 보았으며, 부스에서 스승님의 비디오를 시청한 그날 밤에는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꿈을 꾸기도 했다. 그후 그 는 우리 부스의 ‘단골손님’이 되었고, 동수들이 낮에 스승님의 비디오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차양막을 칠 때 자발적으로 도와주기도 했다.

축제의 첫 번째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직전 갑작스레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관람객들은 우리 부스가 위치한 대형 천막 속으로 뛰어들어 비를 피했다. 이 와중에 관중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상영 중인 스승님의 강연 DVD로 모이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꽃놀이가 끝난 뒤에 다시 돌아와 스승님의 강연을 계

속해서 시청했다. 특히 한 남자는 시끄러운 폭죽 소리도 잊은 채 시종 일관 스승님의 DVD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번 불꽃 축제 및 연안 카니발에 참여한 싱가포르 동수들은 스승님의 안내 속에서는 어떠한 자리도 진리를 나누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특히 황금시대에 접어들어 사람들이 수행을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많은 대중에게 다가갈 기회를 계속해서 스승님이 마련해 주심에 따라 동수들 역시 배우고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우리 모두 언제든 이런 기회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 소식

범아시아 페스티벌에서 국제 협력과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다

도쿄 뉴스그룹

[도쿄] 뽕뽕뽕! 뽕뽕뽕!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처럼 우렁찬 소리가 행인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는 9월 18일과 19일 양일간 히비야 공원에서 열린 2004 도쿄 아시아 도시 페스티벌에 참가한 인도네시아 전통무용 공연이었다. 축제가 열린 원형극장에서는 각국 참가자들의 무용과 음악 공연이 펼쳐졌고, 다양한 아시아 음식과 생활 잡화를 전시한 부스에는 방문객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와 친구가 되자' 단체의 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는 해마다 수많은 방문객으로 성황을 이룬다.

일본 동수들은 올해로 네 번째 참가하는 셈인데, 이번에는 포모사와 한국 동수들도 같이 참가해 나라별로 부스를 차렸다. 일본 부스에서는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지속적으로 상영하고 스승님의 그림과 출판물을 전시하는 한편 참관객들에게 견본책자와 채식 자료를 나눠 주었다. 다른 부스들에서는 똑같이 스승님의 출판물을 전시하면서도 한국 부스에서는 한국 채식 음식을 제공했고, 포모사 부스에서는 전통 중국 차를 시음, 판매했다. 우리 부스들은 모두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부스는 끊임없는 인파로 붐볐다. 축제 기간 동안 연일 꾀뚱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동수들은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도 음식을 마련해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행사 이틀째 되던 날에는 원형극장에서 전시 참가자들을 소개하는 동안 각국 참가자 대표들이 국제 교류와 세계 평화에 대한 의견을 청중들과 함께 나누었다. 한국 동수들은 이에 적극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채식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들은 청중들은 채식에 흥미를 갖고 한국 부스를 방문해 현지에서는 접하기 힘든 한국 채식 음식을 시식하며 동수들과 얘기를 나누었다.

축제 기간 중 견본책자를 받은 방문객들은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 부스 근처의 인도 요리 부스 담당자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우리 부스를 몇 차례나 찾아와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시청하고 뉴스잡지를 열독했다. 한국과 포모사 동수들은 또 일본 동수들을 도와 손님들에게 관음법문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이번 2004 도쿄 아시아 도시 페스티벌은 일본 내 각 센

터와 이웃 국가 동수에게 있어 함께 일하며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동수들은 행사 기간 동안 서로 많은 귀한 교훈을 배우고 힘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다른 나라 동수들과 서로 손잡고 관음법문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일본 동수들의 천국, 스승님의 통나무집

도쿄 신도

[도쿄] 스승님이 일전에 일본에 머무르셨을 때 지냈던 통나무집은 울창한 숲 속에 위치해 있는데, 그 옆으로 맑고 깨끗한 냇물이 흐르고 있다. 스승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이 집은 현재 동수들의 선 행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 동수들은 동수들이 선 행사에 참가하러 출발하기도 전에 무소부재한 스승님께서 이미 도착해 동수들을 기다린다고 믿는다. 특히 올해 3월에 새로 입문한 동수들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스승님과의 즐거운 만남을 위해 장거리 여행도 마다하지 않는다! 명상 시간마다 동수들은 놀라운 체험으로 축복을 받는다. 화신 스승님의 위로를 받고 울음을 터트리기도 하고, 스승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져 정신이 또렷한 가운데 온몸에서 무한한 사랑의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또 이 지역 동수들은 멀리서 참석한 동수들을 내 가족처럼 여겨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단체명상에 참석한 동수들은 모두 근심 걱정을 놓고 진정한 ‘형제자매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멋진 천국을 주신 스승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 스승님의 집은 지상 천국과도 같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작별의 순간이 되면 동수들은 계속해서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고 키스를 던지며 무한한 사랑의 바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모두가 이 통나무집을 떠나기 아쉬워하는 것은 스승님의 신성한 사랑이 모든 이를 신 속에 융합시키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순간 당신의 자녀들이 이토록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흐뭇해하실 것이 분명하다.

필리핀 소식

사랑의 바다에 잠기다

마닐라 뉴스그룹

[마닐라] 관음사자가 마닐라 센터에서 입문식을 치르기 위해 방문한 2004년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 동수들은 즐겁고 잊지 못할 나날을 보냈다.

이번 입문식이 있기 전까지 근 2년 동안 관음사자가 방문한 적이 없어서 예비 입문자들은 가뭄에 단비를 기다리듯 자비로운 스승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관음사자가 필리핀에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모두들 기쁨에 들떴으며, 필리핀 전역의 동수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마닐라까지 26시간 동안 배를 타고 온 동수들이 있는가 하면 버스로 21시간 걸려 도착한 사람들도 있었다.

비행기를 탄 사람도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입문식 동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승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총을 경험했다. 일부 동수들은 내면의 화신 스승님을 보기도 했고, 몇몇 새 입문자들은 입문식 때 자신의 몸이 외계에 있는 듯 너무나 편안하고 환희에 넘치는 고양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입문식이 끝난 후 며칠 동안 관음사자는 단체명상에 참석하는 외에도 동수들과의 조출한 자리를 마련해 차와 간식을 함께 즐겼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노래를 불렀고, 한 사저는 스승님의 시집 『잃어버린 기억』에 나오는 시를 몇 편 낭송했다.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수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와 웃음소리가 온 센터에 가득 울려 퍼졌다. 이 밖에 동수들은 관음사자의 도움을 받아 대중들에게 신의 복음을 알리는 전단지들을 나눠 주기도 했다.

이렇게 멋진 경험을 한 것에 필리핀 동수들은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했으며, 앞으로 열심히 수행하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고훤에서 벗어나 영원불변한 진리를 발견하고 평화와 행복만이 존재하는 신의 왕국으로 어서 돌아갈 수 있길 희망했다.



포모사 소식

황금시대를 맞아 즐거운 모임을 가지다

핑둥 뉴스그룹

【핑둥】 2004년 8월 22일 핑둥 시에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소속 핑둥 동수들은 흥법 세미나와 칭하이 무상사 예술 작품전을 개최했다. 우아하게 장식된 전시장은 지상 천국의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많은 방문객들은 이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스승님의 예술 작품을 감상했다. 또한 동수들의 신실하고 따뜻한 환대는 마치 고훤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전시장에 일찌감치 도착한 왕진스 핑둥 시장은 스승님의 예술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핑둥에서 개최한 이 예술, 영성 전시회는 매우 의미 깊은 행사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지혜와 영성의 상징이며, 영적인 삶을 함양함으로써 고결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칭하이

스승님은 ‘고향으로 가는 길은 이미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하고도 통찰력 깊은 왕 시장의 이 말은 참석한 모든 이들의 공감을 샀다.

세미나는 핑둥 시 민정국장인 종지아즈 씨와 왕 시장의 치사로 시작되었다. 스승님을 간단히 소개한 비디오 ‘사랑의 길을 걷다’가 상영



되자 강연장은 평온과 기쁨의 분위기로 충만해졌다. 이어진 멋진 음악 공연은 청중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세미나에서는 각 계각층의 명망 높은 전문가들이 ‘황금시대를 맞아 심신과 영혼을 건강하고 즐겁게 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수행과 채식의 참뜻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다음으로는 방편법 전수 시간이 이어졌다. 방편법 명상이 끝난 후 새로운 관음 가족이 된 수행자들은 즐겁게 감상을 나눴다. 한 남성은 “명상하는 동안 마음이 대단히 평온했습니다. 다음번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쁨에 차 말했고, 또 다른 남성은 다음과 같이 진심을 밝혔다. “전시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스승님은 날 고향으로 데려가시네’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는 뜨거운 기운이 온몸에 가득 퍼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명상을 수행해 온 저로서 이번 방편법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게다가 어떤 비용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다니, 정말 좋은 단체이며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이번 영성의 향연이 끝난 후에도 전시장에는 평화롭고 천국 같은 분위기에 감싸여 있었다. 이에 우리는 스승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가득 넘쳐 세상을 정화하고 사람들의 영성을 고양시키고 있으며, 또한 사회에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가져오고 사람들의 시야를 폭넓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칠석에 사랑과 자유를 전하다

타이중 뉴스그룹

[난토우] 자녀를 둔 동수들이 갖는 최대의 관심사는 자녀가 수행을 하는 한편 성장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청소년 동수들이 수행의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화창한 늦여름 주말인 2004년 8월 21일과 22일, 난토우 센터에서는 타이중 센터와 난토우 센터 연합으로 친목 행사를 개최했다. 동수들과 가족들을 포함해 약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동수들은 영성도 고양시키고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게임들을 기획해 함께 즐겼다.

올해 ‘황금시대 원년’에 맞는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온 인류의 영성을 고양시킨 스승님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본인도 의식이 높이 고양되었음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젊은 동수들이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집행한 첫 번째 행사였는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상부상조의 느낌은 정말 멋지고도 큰 성취



감을 안겨 주었다. 행사 중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스승님이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견지했다. 그리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면에서

해답을 찾고 그러한 어려움이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젊은 성인(聖人)들은 수행의 필요성과 봉사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흐뭇하기 짝이 없었다!

어릴 때부터 채식과 수행을 하지 않는 대다수 학교 선생님과 친척, 친구들 틈에서 자라난 성장기의 청소년 동수들은 어떻게 세속과 수행 생활, 모두에 적응했을까? 대학에 다니는 한 젊은 사제는 “오히려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영향을 받아 채식하게 되었는걸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채식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명량한 성격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었다며 채식을 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얘기했다.

8월 22일은 마침 칠석이라서 이날 참석한 모든 이들은 ‘사랑’을 상징하는 장미 한 송이를 받고는 웃고 환호하며 온 인류 사이에 사랑이 피



어나기를 소망했다. 낭만적이고 고아한 분위기 속에서 동수들은 쾌활하고 행복한 성인이 되었으며 영혼 또한 높이 고양되었다!

평후 센터 낙성식

평후 뉴스그룹

[평후] 2004년 9월 25일은 새로운 평후 센터가 개관한 경사스런 날이었다. 이날 시후 센터 장주들과 각 지역 연락인 및 동수들이 참석해 함께 경축하며 평후 수행자들의 작지만 포근한 집을 빛내 주었다.



홍콩 소식

선구적인 채식 행사

홍콩 뉴스그룹

[홍콩] 2004년 8월 15일 홍콩 동수들은 채식 식당이 없는 ‘창조우’ 지역에서 채식 시식회와 함께 재미있는 공연, 식이요법에 관한 세미나, 스승님의 출판물 전시회 등 대규모 영성 고양 행사를 개최했다. 창조우 지역 위원회 대표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 주민들은 채식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으며, ‘평화 기도 의식’과 같은 종교 행사 때만 채식을 요리하고 평소에는 몇몇 불교 신자만이 채식을 할 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번 채식 홍보 행사는 이 지역에서 채식 생활을 널리 알린 선구적인 노력이었다.

이번 행사는 200여 명의 손님들을 끌었는데, 진작부터 반응이 좋으리라 예상하고서 동수들이 특별히 준비한 매혹적이고 신선하며 이국적인 20여 가지의 음식이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심지어 인근 해변에서 수영하던 사람들까지 시식하러 올 정도였다. 건강에 이롭고



천연 그대로의 맛을 살린 독특하고도 신선한 요리들이 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멋지게 준비한 채식 바비큐도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동수들이 사전에 선전을 많이 해 놓고 친목을 다져 놓은 데다 당일에도 열심히 채식을 홍보한 결과 참석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하고 고양된 경험을 제공했다!



대한민국 소식

스승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퍼져 가다

부산 뉴스그룹



[울산] 울산 동수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열어 스스로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고 스승님의 고귀하고 소중한 가르침을 지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해 왔다. 특히 지난번 영도 비디오 강연회의 성공으로 큰 영감을 얻었는데, 동수들은 그 행사를 도움으로써 스승님과 전지전능한 신의 힘은 신실한 마음으로 길을 찾는 이들과 언제나 함께한다는 믿음을

배에 큰 감사를 드렸다.

강연회가 있던 날, 아침부터 모인 동수들은 조용히 일하는 가운데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이러한 노력은 놀라운 결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 채식주의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비디오가 상영되는 동안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스승님의 말씀을 대단히 주의 깊게 경청했으며, 많은 이들이 관음법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자리에 남았다. 이에 따라 방문객의 약 1/3가량이 방편 명상법을 신청하며 가능한 한 채식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울산 지역 사람들은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 대단히 열린 마음을 갖

보다 강하게 갖게 되었으며, 더불어 많은 공부도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2004년 8월 29일, 울산 가족문화 센터에서 비디오 강연회가 열리게 되었다. 그날은 원래 태풍이 올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놀랍게도 신선한 바람과 화사한 햇빛으로 날씨가 화창해서 동수들은 스승님의 안

고 있고 생활 방식도 도덕적이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르침을 가까이할 수 있었다.

홍법에 동참한 동수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스승님의 끝없는 사랑과 신

성한 힘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 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기회가 많아지길 희망했다.

몽골 소식

영성의 노래가 몽골에 울려 퍼지다

관음사자

[몽골] 몽골 수도에 있는 울란바토르 센터는 2003년에 단체 명상 장소로 자리잡은 이래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매주 구도자들이 센터를 방문해 방편법을 배움에 따라 하나 둘씩 새로운 입문자들이 관음 가족에 들어와 몽골의 대초원과 사막, 산맥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몽골 동수들은 영적 수준이 대단히 높고 매우 신실하다. 많은 입문자들이 온 마음을 바쳐 스승님의 일을 돕고 동포들에게 관음 법문을 나누고자 노력한다. 최근 먼 곳에서 울란바토르까지 와 입문을 한 후 자신의 고장에 센터를 세우고 싶어하는 새로운 동수들의 신실함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2004년 9월 관음사자가 머물렀던 짧은 기간 동안 동수들은 아주 멋진 분위기 속에서 매일 단체명상을 가졌다. 또 한 동수의 빌라에서 개최된 선이 행사에서는 수십 명의 동수들이 어깨를 맞대고 명상하며 스승님의 특별한 축복을 한껏 누리기도 했다.

이 밖에 관음사자는 바가누르 연락인의 신실한 초청에 응해 바가누르 탄광촌에서 비디오 강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비디오 시청이 끝난 후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이 방편법을 신청했는데, 그 한 사람도 나중에 채식 조건을 지킬 수 있을 때 다시 돌아가겠다고 아쉬워했다. 몽골에서는 채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작이 가능한 땅은 1%도 안 되고, 겨울에 가장 추울 때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다. 하지만 진리를 찾는 몽골 수행자들은 이 모든 장애를 잘 극복하고 있다.

몽골의 경제는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지만 울란바토르 센터는 스스로 자립해 나가고 있다. 동수들은 채식 요리법을 배워 센터에 채식 식당을 열고 집에서 직접 만든 글루텐과 국수, 두부로 된 요리를 선보인다. 그래서



바가누르의 비디오 강연회.



강연회 후 연락처를 적고 있는 새로운 방편법 수행자들.

센터에는 따뜻하고 번창해 나가는 기운이 가득하다.

천성적으로 쾌활하고 호방한 성품을 갖고 있는 몽골 동수들은 노래도 아주 잘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



몽골의 이 수행 신문은 정기적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무료로 싣고 있다.

는 합장을 하곤 어떤 관음사자가 가르쳐 준 노래를 부르며 기도한다.

“성심으로 칭하이 무상사를 믿기만 한다면...” 그 신실한 노랫소리에 감동한 동수들도 같이 합창하다 보면 스승님의 사랑으로 모든 분쟁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스승님의 은총 속에 간단한 노래 하나, 신실한 영혼 하나가 모든 몽골 동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는 본래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강하면서도 달콤한 노랫소리가 마치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듯 정말 듣기 좋다. 관음사자의 송별회에서 동수들은 스승님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합창곡을 불러 주었는데,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이 밖에 한 신실한 동수는 원래 큰 전기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입문한 후 회사를 입문한 아내에게 맡기고 자신은 온전히 스승님의 일에 몰두하고 있다. 센터를 자기 집처럼 세심하게 돌보는 그의 모습을 보며 모든 이들이 깊은 감동을 받는다. 의견을 나누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몽골의 관음 가족.

행사 메모

지구에서 진행 중인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가장 강력한 만트라

무임바 로날드 사형/ 아프리카 우간다 (원문 영어)

나는 최근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스승님의 은총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 이 놀라운 경험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칭하이 어머니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간다 자녀들의 사랑과 안부를 전해 드린다. 스승님의 그 무한한 축복에 대해선 어떤 감사의 말로도 다 할 길이 없다.

세상은 마음의 길을 추구하고
극소수만이 구루의 길을 따른다.
하지만 칭하이 어머니 덕분에
대자연의 비밀이 모습을 드러낸다.

잡자는 영혼을 위해 영성의 힘은 떠오르고
내면의 진리를 일깨운다.
관음(觀音)은 우주의 신비를 밝히고
영혼을 흔들어 깨운다.
그러니 형제자매여, 이 이름을 외우라.
‘나무 칭하이 무상사!’

이 이름을 외우는 이는 사랑의 바다에 가까워지리니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만이 함께하리라.
모든 분쟁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오묘함을 헤아릴 수 없는 이 이름은
그 비밀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으니
알게 된 이는 구원을 얻고
다시는 지상에 태어나지 않으리라.

‘나무 칭하이 무상사’를 외치니
그대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리라.
이 진실하고 완벽한 이름을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간직하라.

그 이름은 환상을 물리치고
마음을 달래어 주니
아무런 의심도 없으라.
‘나무 칭하이 무상사’
이는 신의 이름
우리의 무상사가 주신 ‘말씀’.

마음이 무상(無上)의 신의 이름과 함께하면
그 순간이 단 몇 초라도
모든 업장이 그 순간 소멸된다.

기쁨에 겨운 선물로
단지를 채운 수행자는
홍로 살아남으리라.
모든 지혜의 원천을 마신 이가
여찌 죽을 수 있겠는가?



발렌타인데이에 찾은 나의 영원한 연인

중국 본토 동수 '바다의 아들' (원문 중국어)

스승님은 남자들의 정이 깊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게다가 나의 사랑은 유달리 깊어서 이 때문에 나는 심한 고통을 겪곤 했다. 연애에 두 번 실패하자 활기 넘치던 젊은이는 애늬은이로 변해 버렸다. 당시의 내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정말 나만 알 뿐이다. 게다가 그 두 번의 연애 사건으로 정신이 반쯤 나가자 좌절만 거듭되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데 열심이고 출세하고자 했던 부지런한 아이였다. 또한 만사에 완벽을 추구하고 한번 정한 것은 쉽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런 태도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도 고결한 이상을 갖게 됐다. 그래서 나는 한 명의 연인에게 고집스레 집착하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입문하기 전 만난 첫 번째 애인과 나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더라도 우리 사랑만은 변치 말자고 맹세했다. 그때는 물질 세계에서 맺은 관계의 무상한 속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후 그녀가 내 곁을 떠나자 크게 낙심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집에도 큰일이 생겨 내 가슴은 기다란 침에 찔린 듯했다. 무명으로 인해 생긴 심적 고통은 나의 삶을 바뀔 놓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사랑을 찾겠다고 맹세했다. 그 외 모든 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 무렵 입문을 한 후 나는 다시 청춘의 활력을 되찾았고, 나의 두뇌는 다시 아름다운 사랑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나는 세세생생 낭만적인 사랑을 찾는 틈에 걸려 해탈을 못 했는데도 나의 두뇌는 그런 짓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끝이 보이는데도 굴복하려 하지 않고 깨어나길 거부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떠들썩한 연애를 시작했는데, 결국 그 사랑은 다시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나는 명리나 사회적인 지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만을 찾을 뿐이었다.

2004년 발렌타인데이, 모든 희망과 꿈이 또 한 번 사라지자 나는 고통에 빠져 스승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스승님! 이 가련한 영혼은 이제 스승님의 손에 맡길 뿐입니다. 전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고요한 가운데 스승님께서 나를 부드럽게 위로하셨다. 스승님은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아이야, 이제 그만 미로에서 빠져나오렴. 내가 바로 네가 늘 찾고자 했던 영원한 연인이란다!” 이 말씀을 듣고 나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나와 세세생생 쌓였던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한꺼번에 씻어 내렸다.

스승님, 당신말고 어디서 영원한 연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세세생생 저를 버리지 않고 제 곁에 있어 주겠습니까? 오직 스승님,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바로 저의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이제 전 지극한 평온과 무한한 기쁨으로 넘칩니다! 스승님, 전 이제 더 이상 외진 곳에서 고뇌하는 비참한 영혼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당신만을 따를 것이며, 어떠한 난관이 닥쳐도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무상의 지혜를 얻는 유일한 법문

청하이 무상사/ 1996. 2. 21. 포모사 시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28

세상을 버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에고를 버리는 것입니다. 에고는 '나'는 어떠해야 하고 '나'의 생각에 따르면 남들은 어떠해야 한다는 수많은 생각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삶을 살고 수행의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원래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스승을 따르기가 쉽고 한 생애 해탈하기가 쉽다면 이 물질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환영의 왕인 마야는 할 일이 없어서 해고되겠지요. 그래서 그가 신에게 허락을 얻어 온갖 속임수를 쓰고 온갖 신통을 부려 이 물질 세계라는 주단을 이토록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내어 사람을 홀리고 눈길을 빼앗아 탄 곳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왕 또한 마왕, 환영의 왕이 되기 전에 수행을 했었지만, 그 수행은 종류가 다릅니다. 그는 신의 허락,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 온갖 고행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자와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행을 하든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신을 집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거나 단

단한 물체를 꿰뚫어 보고 아주 먼 곳에서 어디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뿐, 무상의 지혜는 오직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들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거지요. 만물은 그 나름의 순서가 있고 우주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법문은 오로지 진리만을 추구하고 그 외의 것은 바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신통력과 우주적인 힘, 영계의 다른 특권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이들에게 주어질 테고요. 마치 왕을 알현하



러 갔을 때 왕이 무엇이든 가져가라고 하자 다이아몬드나 루비, 혹은 왕의 의자나 탁자 같은 골동품에 빠져 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한 여인은 왕만을 원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보물 가운데 일부가 아닌 왕을 원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왕을 비롯해 온 나라가 자기 것이 되었지요.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관음 수행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으로 무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진실한 수행자는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업장과 습관

자신에게 익숙한 장소나 친구, 생활 환경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윤회해 이 세상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들이 죽는 순간에 오로지 두고 떠나야 하는 것들을 계속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들은 또 다른 삶을 살고자 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더 많은 부인을 얻길 원합니다. 죽는 순간에 바라는 것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행기를 마치면 이 세계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기가 정말 어렵지요.

당기만 하면 금으로 변화시키는 돌을 찾아 나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금석이라고들 하지요. 그 조약돌을 발견해 갖다 대기만 하면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한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 조약돌을 찾을 수 있는 보물 지도를 얻어서 찾아 나섰습니다. 백사장에 도착하니 수백만, 수십억 개의 조약돌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생긴 게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돌은 차갑지만 시금석은 만졌을 때 따뜻하다는 게 달랐지요.

그는 날마다 백사장에 가서 조약돌을 하나씩 만져 보고 차가운 돌이

면 다시 집어들지 않도록 바다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는 정말 인내심이 많아서 매일 조약돌을 하나씩 집어 들고 만져 봐서 차가우면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러기를 수없이 계속하던 어느 날, 드디어 따뜻한 조약돌을 발견했지만, 그는 그만 습관적으로 그것도 바다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업력(業力)입니다. 업장이란 습관을 말합니다. 무엇이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에 따른 고정된 결과를 놓고 그후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사람이 늘 윤회하는 것입니다.

윤회의 원인

이러한 모든 것은 아주 덧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삶조차 우리 것이 아니지요. 우리 삶이 우리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든 생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경고도 없고 우리에게 물어보거나 허락을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 관음 수행자들만은 죽기 전에 압니다. 우리는 3일, 일주일, 때론 한 달이나 석 달, 혹은 이보다도 전에 미리 알고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사랑하는

부인, 남편, 아이들이 언제 생명을 잃을지, 그리고 그들이 함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가엾은 인간들과 다른 중생들의 운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때를 모릅니다. 우리 삶조차 우리 것이 아닌데도 우

리는 이러한 덧없는 것들에 집착해 새로운 모험을 하길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것도 하고 싶고 이곳저곳도 다니고 싶지만, 주변 환경에 집착한 나머지 새로운 것을 하거나 더욱 신나는 일을 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 대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고속도로를 들어갔다 나오고 자동차와 집을 오가며 하루를 보냅니다.

때론 삶이 너무 지루해도 그것을 바꿀 용기가 없거나 진취적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머물며 아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들을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두

고 떠나지 못하며, 그들과 함께 있지 않거나 그곳에 있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듯 느낍니다. 대다수 중생의 운명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윤회하고 또 윤회합니다. 바로 우리가 항상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 하고 그후엔 이전에 가졌던 것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지요. 그게 전부입니다.

대대로 내려온 유전적 흔적을 씻어내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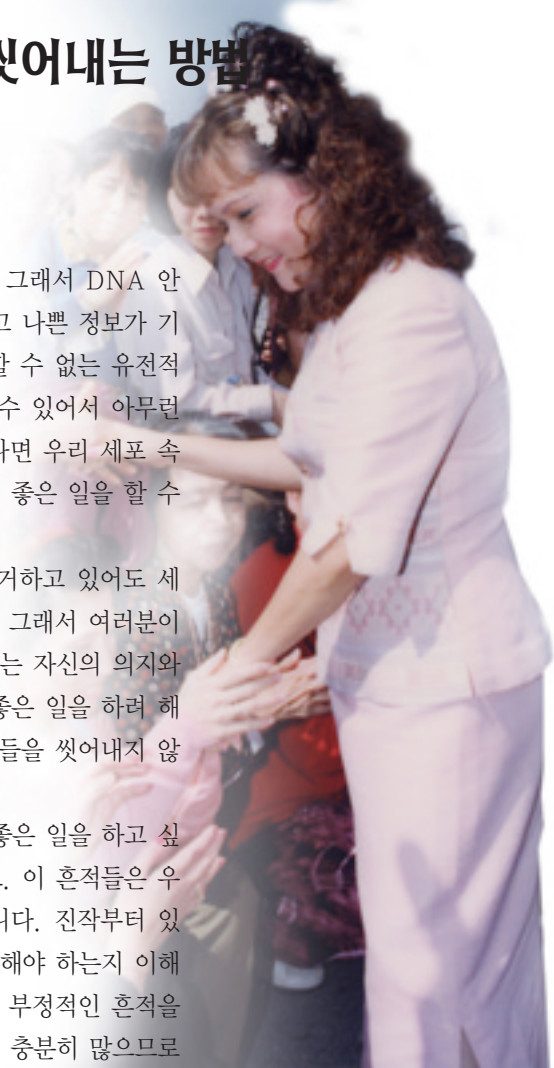
청하이 무상사/ 1994. 9. 14. 태국 방콕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46

인류는 태곳적부터 많은 나쁜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DNA 안에 담긴 나쁜 흔적을 지우기가 매우 어렵지요. 때로는 좋고 나쁜 정보가 기록된 몸에 태어나기도 하는데, 그 정보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유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명상을 하면 그것을 씻어내고 지울 수 있어서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부분씩 지워 나간다면 우리 세포 속에는 부정적인 흔적이 조금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성이 있고 여러분 내면에 신이 거하고 있어도 세포 속의 DNA에 새겨진 흔적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속도가 느린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이 나쁘고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달리 부정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 해도 명상하지 않거나 신의 힘으로 세포 속의 DNA의 흔적들을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이 부정적인 흔적들과 싸우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 흔적들은 우리가 이 몸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입니다. 진작부터 있었던 거지요. 이제 여러분은 왜 명상을 해야 하고 채식을 해야 하는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안 그래도 나쁜 자신의 DNA에 부정적인 흔적을 더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나쁜 기록은 이미 충분히 많으므로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오랫동안 명상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DNA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로 앞의 전생에 한 번도 명상하지 않았던 몸을 얻은 건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수많은 조상 때부터 가족 중 아무도 명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피임약을 사용하거나 낙태 등을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가족에게 태어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 가족에게나 뛰어 들어가면 나쁜 DNA를 갖게 되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빛과 소리의 명상을 하면 이

런 것들을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세요. 나는 미신에 관한 것들을 말하거나 나를 숭배하라거나 돈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여러분과 세상을 위해 좋은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시도하라

부처는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부처였지만 6년 동안 명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신의 아들이었지만 이곳에 와서는 십여 년간을 돌아다니며 많은 스승들에게 배우고 사막에서 명상한 후에야 세상에 나와 완벽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DNA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거나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물려받은 도구가 우리의 뜻

과 맞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용서하고 언제든지 다시 시도하십시오.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 444 <영어 + 중국어 자막>

자신에게 의지하라

1994. 9. 6. 미국 하와이 단체명상

내용 요약: 어쩌서 깨달은 스승조차 이 물질 세계에 내려와서는 수많은 생 동안 유전자 속에 축적된 습관과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천상의 기억을 되찾고 우리가 이생에 온 목적을 기억할 수 있는가? 신은 전능한데 왜 우리의 기도에 항상 대답하지는 않는가? 예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내려와 완수해야 할 임무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가? 관음법문 수행자는 천인(天人)과 어떻게 다른가? 폭력적인 영화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은? 이 DVD에서 스승님은 심오한 지혜로써 위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공하십니다.

스승님의 말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 자막이 추가된 DVD가 재판되었습니다.

DVD 737 편안한 수행 (중국어 + 영어 자막)

DVD 739 스승님의 화신 (중국어 + 영어 자막)

DVD 648 전쟁을 끝내는 방법 (영어 + 어울락어, 중국어 번체, 중국어 간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헝가리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스승님이 가져다주신 사랑

중국 본토 허베이 성 사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아직 어린 나와 남동생을 두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나의 어린 시절은 외롭고 괴롭고 우울한 나날이었다. 극도의 상처를 받은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동정을 하며 많은 애정 어린 관심과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 수 없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이 지금의 남편과 나를 같이 앉힌 것은 신의 안배였던 것 같다. 남편은 학생 시절 매우 품위 있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항상 거리를 두었다. 나에게 있어 그는 하늘에 높이 뜬 달처럼 찬란하지만 너무나 먼 상대였다.

한번은 우연히 그의 집에 갔다가 매우 다정하고 자애로운 그의 이모를 만나게 되었다. 이모님은 내게 호감을 보였고 나 역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친근한 마음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맺어 주려는 이모님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는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결혼하기 전 나는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때의 느낌은 많은 세월이 흐른 끝에 결국 의지할 곳을 찾아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님은 입문을 하고 내게 스승님을 소개해 주셨다. 나는 스승님의 사진을 처음 보자마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고 외쳤다. 조용히 스승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으니 마치 이 전부터 아는 사람 같았다. 나중에 뭔가 무형의 힘이 나를 스승님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이끄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방과 사진 속의 아름다운 여인이 내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이모님을 통해 관음법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입문을 갈망하기 시작했다. 당시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때라서 아이가 없었는데, 나를 많이 사랑하신 이모님은 내가 어서 아기를 갖기를 원했지만 나는 무심코 이렇게 대답했다. “급할 것 없어요! 입문하면 아이가 생길 거예요.” 말해 놓고 보니 마치 내가 아닌 딴 사람이 말한 것 같아 스스로도 놀라고 말았다.



몇 주 후, 나는 순조롭게 입문을 하고 스승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드렸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사랑이 용솟음치는 것 같았고, 나와 남편은 서로를 더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게다가 남편은 나를 좀 더 이해하고 자진해서 나에게 채식 요리를 해주기까지 했다. 한 달 후 임신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정말 생각대로였다. 나면서부터 채식을 하게 될 이 아기는 스승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임신 기간 동안 나는 건강 상태가 좋았다. 그리고 명상할 때면 내 안의 작은 생명이 나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때로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아이와 내가 채식으로 영양이 부족한 건 아닌지 염려했다. 나는 채식하는 것이 아이의 건강에도 더 이로울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차분히 그를 안심시켰다. 나중에 정기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아기가 아주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군요!”라고 말하자 그제야 남편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아기가 태어나는 동안 나는 스승님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너무나 차분해 산통도 없는 것처럼 보인 데다 다른 산모들에 비해 굉장히 강하고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의사는 매우 놀라며 신기해했다. 나는 한 차례, 그나마 극히 적은 산통을 겪은 후 사랑스러운 아이를 얻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이는 장밋빛에 포동포동했으며 수정처럼 투명하고 옥처럼 반짝였다. 내 품에 안긴 눈부시게 아름다운 생명을 보면서 내 가슴은 부드러운 감정으로 가득 찼으며 신의 강렬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 딸은 다른 아이들보다 아주 상냥하고 행동이 의젓하다. 항상 얼굴에 웃음을 달고 있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이라도 속상해하는 것을 느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드럽게 위로해 준다. 이 작은 천사는 또 마음이 아주 민감해서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작고 약한 동물들에게는 큰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이렇게 말한다. “그들을 해치면 안 돼요. 동물들은 인간의 친구니까요.” 딸아이는 우리 가정에 더 많은 온기를 가져다주었고, 남편도 최근에 방편법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스승님은 나에게 천사 같은 가족을 주셨다. 이모님과 남편, 딸아리와 나는 아주 먼 과거에서 돌아와 이생에서 공통의 고아한 이상을 이루기 위해 다시 만난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사랑을 찾아냈다. 그래서 지금은 나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신의 은총을 통해 어떻게 다른 이를 사랑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사랑하는 스승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온 가족은 스승님이 영원토록 건강하고 젊고 아름다우시길 기원한다!



신과 하나가 되어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음을 알라

청하이 무상사/ 1999. 11. 27. 남아공 케이프타운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9

질문: 신이 자비롭다면 지진이나 해일 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스승님: 사물을 보는 데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과 물질적인 재산, 혹은 이 물질 생활만이 이 삶과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신이 어찌면 저렇게 무심하게 파괴하고 인명을 앗아 갈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리고 신의 지혜를 믿는다면 만사가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지요. 이것이 사물을 보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좀더 실제적인 각도에서 말하자면, 다는 아니겠지만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무를 벌목하는 바람에 강우량이 줄어들고 더욱 빈번한 산사태와 가뭄을 조장해 결과적으로 농작물 수확에도 영향을 미쳐 사람들을 굶주

리게 만듭니다. 또 여기저기 어디에서나 원자탄을 실험하기도 해 지구의 자장과 변화, 회전 등의 안정성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무시무시한 재난들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을 찾습니다. 아무튼 신은 그 자리에 있으니 아주 편리하지요. 하지만 신은 무엇을 가져가든 다른 것으로 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인 신은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신과 하나가 되어 무한한 지혜와 비전이 있는 저 높은 차원들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신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높은 경지에 오르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가장 좋은 안배라는 것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신을 찾지 않게 됩니다.



환경 보호에 힘써 지구를 구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9. 8. 4. 미국 뉴욕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4

질문: 우리가 황금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시는 데, 그럼 세상이 더 나아질까요?

스승님: 예! 세상이 이미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질문: 문제는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좀더 많은 해결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배기가스는 정말 싫거든요.

스승님: 맞아요. 끔찍하지요! 나도 매연을 들이마시면 기분이 아주 나빠집니다. 불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가 교통 체증으로 길이 막힐 때면 이걸 매일 겪는 여러분이 참 안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관료 체제와 법규, 온갖 기업들의 관행과 이익에 혈안이 된 기관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물건이 발명되어도 기업 간의 서로 다른 방식 때문에 세상에 바로 나오지 못하기도 하지요.

현재만이 아니에요. 백여 년 전 사람들이 그 술한 발명품을 수용했다면 이 세상은 진작 나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때로 서로를 시기합니다. 위대한 사람들, 과학자들, 사업가와 기업가조차도 서로를 시기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때론 발명 초기에 있는 것을 파괴시키

는가 하면 발명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또 발명품을 은폐시키거나 왜곡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원래만큼 나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자동차는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당신이 뭔가를 시작해야 할 겁니다. 길거리마다 슬로건을 내걸 수도 있지요. “배기가스는 이제 그만! 새로운 연료를 발명하라!” 하고요.

한편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세계에는 ‘그린 피스’와 같은 많은 환경 보호 단체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많은 환경 보호 단체들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환경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요. 학교는 잘 다니지만 이런 상식은 배우지 못합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니 그게 문제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린 나무가 필요해서 나무를 베지만, 나무 한 그루를 베면 두 그루를 심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그렇게 많이 베면 치명적인 기후 변화를 가져옵니다. 미국은 현재 살인적인 날씨를 겪고 있습니다. 올여름엔 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여전히 수많은 나무를 벌목하고 화하

물질을 사용한다든가 하며 환경을 파괴시키는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요. 나무 한 그루를 벨 때마다 두 그루를 심는다는 말은 썩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베어낸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백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심는 두 그루의 나무가 이전 나무처럼 공기를 잘 조절할 수 있으려면 또 다른 백 년 이상이 걸립니다.

가령 아마존의 열대 우림이 파괴되면 또 다른 숲을 조성한다 해도 수백 년 정도는 자라야 현재의 아마존 나무들과 같이 산소를 만들고 공기 중의 불순물을 중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베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크기가 같겠지만 그 능력은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몇몇 천재를 제외한 일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지혜가 많아집니다. 몸집도 그대로이고 얼굴도 같지만 지혜와 경험이 달라지지요. 마찬가지로 나무들도 공기 중의 독성을 중화시키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무분별하게 벌목하여

부를 축적하는 탐욕스런 기업들을 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며 많은 이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피해는 훨씬 더 장기적입니다. 이 지구의 생명 구조원인 큰 나무들을 벌목함으로써 지구를 황폐화시키기 때문이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벌목한다면 우리 행성은 조만간에 화성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화성은 온통 먼지와 가스, 유독 물질과 오염으로만 뒤덮여 있어서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화성이 예전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화성도 우리가 끝장내기 전까진 이런 행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함께 나누십시오. 최소한 물질적인 방면에 대해서요.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 자신과 자녀, 손자, 손녀를 죽이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들이나 자신이 피부암에 걸려 앓거나 더위로 우리 모두가 죽게 되면 지금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 생명을 다시 살려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함께 나눠야 합니다.

세속을 버리는 것은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다르다

칭하이 무상사/ 1999. 8. 4. 미국 뉴욕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4

질문: 우리가 관음법문을 수행함에 있어 스승님은 은둔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 자신과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깥 세상과 떨어져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정말 민감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일부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스승님: 걱정 마세요. 명상을 할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 주변이 좀 부정적이더라도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정신이 흩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만일 은둔하고 싶고 상황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히말라야에 가든지 동굴에 들어가세요. 누가 신경 쓰겠어요?

단지 나는 극단적인 것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고 이미 가정이 있거나 앞으로 갖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세속을 떠나라고 부추길 수 없습니다. 그래선 안 되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양쪽 모두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면서 수행도 할 수 있지요. 그런 대립적인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강인하게 느낍니다. 그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별다른 흔들림 없이 평정을 유지하고 그것을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사는 걸 견딜 수 없다면 당신에게 맞는 길을 찾도록 하십시오.

질문: 그러니까 혼자 어디론가 가서 명상하고 싶어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란 말씀인가요?

스승님: 그렇습니다. 능력이 되고 아무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려고요? (대중 웃음)

질문: 히말라야 산으로 갈까 하는데, 또 모르지요.

스승님: 좋아요. 당신이 거기가 마음에 들고 스스로 돌볼 형편이 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가족들과 아무 문제가 없고 걸리는 사람도 없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족을 떠나 히말라야로 간다면 그 집착하는 기운이 계속 끌어당길 텐데, 그러고도 히말라야에 앉아 있을 수 있을진 모르겠군요. (대중 웃음) 그게 문제지요!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 한 일주일 정도 가족을 떠나 어찌 되나 보십시오. 가족들이 전화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부르는 소리가 날 겁니다. (스승님이 멀리서 메아리치는 목소리를 흉내내심.) “아빠, 어서 돌아와요!” (대중 웃음과 박수)

고행은 업장을 소멸시킬 수 없다

청하이 무상사/ 2000. 5. 2. 홍콩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690

질문: 스승님, 고행으로 성불하지는 못한다 해도 업장을 없애거나 업을 지우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됩니까?

스승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행은 쓸모가 없습니다! 왜 자신의 부처를 확대합니까? 부처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를 확대하면 바로 부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부처에게 미움을 사는 거지요. 석가모니

부처는 얼마간 고행한 후 이를 그만뒀야 했습니다! 결국엔 고행을 포기하고 진실되고 올바른 법문을 수행했지요. 그래서 그의 업장이 소멸된 것이지, 고행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법문으로 수행할 때는 설령 약간의 고행 수행이나 사치 수행을 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길이 맞기만 하면 택시를 타든 롤스로이스

를 타고 가든 상관없이 없는 거지요. 맞는 길로만 가면 되는 거지, 차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나는 택시를 타고 이 강연장에 왔고 여러분은 버스나 롤스로이스 혹은 자가용을 탔겠지만 여러분도 여기 도착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같은 길을 타고 왔기 때문이지요. 고행이 좋다, 나쁘다는 것을 떠나 올바른 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해탈을 하고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음은 우리에게 내재된 치유력을 일깨운다

청하이 무상사/ 1993. 3. 16. 호주 시드니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33

질문: 스승님께선 깨달으면 부와 질병, 높은 사회적 지위와 같은 모든 것을 놓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를 놓을 수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질병에 대해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까? 병이 나면 매 순간이 고통스러운데요. 엄청난 고통과 비참함이 생기는데, 어떻게 이를 놓을 수 있습니까?

스승님: 그저 깨닫기 전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린 최대한 육신을 잘 돌보고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돌보고요. 하지만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경우엔 우리의 참을성과 인내력이 커져서 질병은 우리에게 그다지 큰 문제

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말은 질병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질병이 우리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깨달은 뒤에는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질병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초능력을 가진 대자야가 깨어나 육신의 잘못된 부분을 조절하고 없애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암이 없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수술대에 올라가 마취까지 했는데 암 세포가 없어져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 수술실 밖으로 내보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질병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질병이 깨달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도둑의 참회



청하이 무상사/ 1994. 5. 23. 포모사 타이베이 선철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28 (MP3-CR15)

예전에 어떤 마을에 아주 선량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이 없었을뿐더러 모든 마을 사람들과도 아주 잘 지냈어요. 그는 집에서 거위, 오리, 닭 같은 애완동물을 길렀습니다.

그의 이웃 가운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선량한 사람의 집에 들어와 오리를 한 마리 훔쳐 갔습니다. 도둑은 집에 돌아와 훔친 오리로 오리구이도 해 먹고 수프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자 해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온몸이 가려워서 긁었더니 몸에서 오리 털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어 도둑의 온몸은 오리 털로 뒤덮였습니다. 도둑은 이제 자신이 한 짓에 대한 응보라는 것을 알고는 너무나 두려워서 서둘러 참회를 했습니다. 매일 절에 가서 부처님께 용서를 빌었죠. 얼마 동안 용서를 빌자 그 신실함에 감동한 부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네가 그토록 신실하게 참회하고 있으니 너의 몸에 오리 털이 자란 이유를 알려 주겠다. 그것은 네가 선량한 사람의 오리를 훔쳐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병을 고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혼이 나야 한다. 그럼 그 즉시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도둑은 오리 주인의 집을 찾아가긴 했는데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듣자하니 오리를 도둑맞았다고 하더군요. 난 옆집 사람이 당신 오리를 훔쳐 간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이 큰 소리로 혼내면 그 사람이 무서워서 당장 오리를 갖다 줄 겁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오리 주인은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겨우 오리 한 마리 가지고 뭘 그러세요? 별것도 아닌걸요. 게다가 그 사람이 오리를 훔쳐 갔다는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혼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배가 고프는데 먹을 게 없어서 오리를 훔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를 욕할 필요가 없지요. 괜찮습니다.” 도둑은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 너그러운 인품에 감동을 받으면서도 혼내지 않으니까 더욱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당신의 오리를 훔쳤다고요. 저 좀 보세요. 온몸에 털이 났잖아요! 제발 저를 좀 혼내 주세요. 당신이 저를 혼내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부처님이 알려 주셨거든요!” 선량한 사람은 매우 감동해 그를 야단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단치는 건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업이 있다면 그들이 그 업을 씻어 주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아무런 업도 없는데도 사람들이 욕한다면 그래도 인내심과 인욕, 겸손함을 단련할 수는 있는 거지요.

2004 타이난 도서 박람회

‘사랑을 펼쳐라! 타이난의 하늘을 밝히자!’ 라는 주제 아래 100여 개 출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04 타이난 도서 박람회가 황금시대 원년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었다. 타이난 센터도 이번 도서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생동감이 넘치는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전단지 배

포, 매체 보도를 통해 신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 행사 팀은 많은 정선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는데, 특별히 타이난 문예 인사를 초청한 세미나도 기획했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특히 스승님의 중문판 『무자시(無子詩)』에 기초한 연극 공연과 구연, 시 낭송, 노래 공연이 선보여 많은 청중들에게 각별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도서전 동안 타이난 센터는 정적인 전시물과 동적인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정적인 면에선 부스에서 스승님의 예술 작품과 경서, DVD, 비디오 및 오디오테이프, CD를 전시했고 동적인 면에선 채식 식회와 음악 공연, 스승님의 영시(英詩) 낭송, 건강 의학 세미나, 영성 미학·천의 세미나, 『무자시』 문화 토론, 그리고 타이난의 저명한 서예가들의 즉석 서예 시연 등 다채로운 활동들이 이어졌다.



폭풍 속의 고요

도서전 기간 동안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에어리가 포모사에 상륙했지만 수많은 독서 애호가들의 발걸음은 막지 못했다. 우리 부스는 매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스승님의 대형 법상 앞에서 방문객들은 축복을 받고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 천사 같은 미소를 띤 사제들은 방문객들을 다정하게 맞이하며 향기로운 꽃차를

대접해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황금색 계통으로 장엄하게 꾸며진 부스 중앙에는 스승님의 법상을 걸고 난초로 둘러쌌다. 그 주변에 만세등과 천의, 그림 등 스승님의 예술 창작품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서향(書香)·예술과 영성’의 조화로운 기운과 어우러져 현장에 강한 영성의 빛을 발산했다. 또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가 두 대의 대형 LCD 스크린을 통해 방영되어 방문객들은 스승님의 대지혜를 한껏 흡수할 수 있었다.

행사 나흘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센터 부스는 그리 크지 않은 데다 맞은편 무대가 앞을 가리고 있어서 스승님의 법상이 잘 안 보였다. 이날 동수들은 단채명상을 하며 도서전의 성공적인 기원을 위해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때 한 사형이 방문객들이 우리 부스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행사장의 배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내면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 사형이 작업 팀과 함께 위치 변경에 대해 상의하고 있을 때 주최측에서 갑자기 스승님

의 법상을 가리고 있던 무대의 나무 칸막이 두 개를 제거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스의 시야가 순식간에 트여 멀리서도 스승님의 크고 장엄한 법상이 보이게 되었고, 무대 앞에 모인 관중들도 쉽게 우리 부스를 방문할 수 있었다. 신이 당신 자녀들의 눈을 열어 주셨다는 말 그대로였다!

천상의 음악이 날아다니다

박람회 첫날 타이난의 유명한 밴드인 'Just Jazz' 가 스승님의 창작곡을 색소폰으로 몇 곡 연주했다. 갑작스런 음악 소리에 놀란 관람객들은 그 아름다운 선율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전시회 기간 중 지터와 바이올린, 피아노 등 개성과 음색이 서로 다른 악기들로 공연을 선보였는데, 공연을 한 동수들은 악기에 영혼의 기쁨을 실어 연주해 청중들의 심금을 울렸다! 또한 스승님의 영시 낭송회에서는 바

이올린 소리와 함께 낭송자의 달콤하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어린이의 가슴이 신을 향해 열리다



어린이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것은 만화로 보는 지혜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였다. 만화집 내용에 관한 퀴즈 맞히기도 열렸는데, 대부분 입문을 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상을 받았다. 어린이들은 이야기와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얘기했다. 그 중 아직 글자를 깨치지 못한 한 유아는 엄마가 읽어 주는 내용을 듣고 문제를 이해해 정답을 맞히기도 했다. 이 어린이 친구

는 매일 밤마다 스승님의 책을 꼭 꺼내고 달콤한 꿈나라로 떠난다고 한다. 또한 어린이들은 스승님의 그림이 인쇄된 책갈피도 소중히 간직했다. 책갈피에 계속해서 뽀뽀를 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을 보며 어린이들의 순진무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육신과 영혼의 건강 세미나 및 채식 시식회

8월 22일과 28일에는 의학 전문가인 동수가 강연을 맡은 건강 세미나가 열려 빈자리 하나 없이 많은 청중들을 불러모았다. 청중들



은 이 세미나에서 많은 질문을 하며 강연자와 함께 열렬한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채식과 인류, 자연 간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하는 한편, 긍정적인 사고와 근면한 수행을 통해서 소아(小我)를 대아(大我)로 발전시키고 영성이 성장함에 따라 신체도 더욱 건강해진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세미나가 끝난 후 동수들은 맛있는 중국 및 서양의 채식 요리들을 제공해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모양과 맛, 향을 모두 갖춘 음식들은 채식 음식 또한 맛있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천의의 미학

‘영성 미학·천의 세미나’에 참석한 미학 전문가와 패션 디자이너들은 스승님의 의상에 표현된 영적·예술적 가치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천의 유래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천의 슬라이드 쇼와 유럽, 미국 등 패션 중심지에서 개최된 국제 천의 패션 쇼에 대한 다



큐멘터리 영상물이 상영되었다.

참석자들은 전문적인 안목으로 천의에 대한 견해를 함께 나누었다. 타이난 여자기술학교 의상 디자인학과와 차이이진 박사는 스승님의 천의를 세밀히 살펴보면서 겸손한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했다. 차이 박사는 스승님을 타고난 디자이너라고 칭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의상의 색상 조화, 빛나는 아름다움, 특히 다양한 의상을 창조하는 보기 드문 창조력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상의 재단과 구성, 곡선을 철저히 고려하면서도 의상의 모든 요소들 간에 균형과 조화를 잡아주는 스승님의 능력은 일반 디자이너와는 격이 다릅니다.”

같은 대학의 허링진 강사는 “천의는 정말 입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합니다. 천의의 전체적인 형태와 재단, 옷감의 무게도 정말 편안하고요. 천상에 있는 것들만 이처럼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을 겁니다. 천의를 입고 나면 정말 아름다워지지요. 천의는 미의 완벽한 표현입니다.”라고 말했다.

스승님의 『무자시(無子詩)』가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무자시 세미나’는 영혼을 위한 매우 특별한 축제로서 청중과 강연자 모두를 감동시켰으며, 참석한 이

들은 모두 칭하이 무상사에게 경의를 표했다.

세미나에는 타이난의 많은 문예 인사들이 참석해 『무자시』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는 한편 중국어와 포모사 토속어인 하라어로 시 낭송을 하며 『무

자시』에 대한 사랑과 감동을 전했다. 중화 서도학회 장티엔위안 이사는 무자시의 유래를 상세히 소개하고 스승님을 고대의 노자, 장자에 비견하며 “칭하이 무상사는 수행의 완벽한 경지를 성취하신 분”이라고 찬탄했다. 국립 타이난대학의 천지산 교수도 “스승님은 궁극의 진리를 성취하신 깨달은 스승입니다. 스승님의 시를 보면 모든 중생에 대한 스승님의 자비와 강렬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지요. 이 자리에서 ‘미로’, ‘수행을 권하며(勸修)’, ‘한상(閒傷)’을 낭송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또 다른 귀빈인 타이난 포모사어 한시회의 창시자 천타이탄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승님의 『무자시』는 세속을 초월하여 성(聖)의 경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당신을 사랑합니다(吾愛汝)’는 가장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감정을 초월한 무아의 큰 사랑이 독자의 내밀한 가슴을 감동시킵니다. 『무자시』를 읽은 후

보이지 않는 자장의 힘에 이끌려 강렬한 영감 하에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 시를 하락어로 낭송했다.

청(淸) 청정히 세속을 버리고 선계로 도약하니
해(海) 바다는 억만 창생을 구원하도다
무(無) 무아로 티끌 세상에서 해탈을 구하니니
상사(上師) 무상사는 관음법문을 통달하였어라

그는 이 시를 스승님께 헌정한 후 스승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吾愛汝)’와 ‘미안마 행’ 두 수를 더 낭송하고 ‘미안마 행’의 시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보기엔 스승님의 각 시들은 무형의 산수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신실하게 칭하이 스승님의 영적 인도를 받아들여 인생의 근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천 선생은 세미나가 끝난 후 즉시 방편법을 신청했다.

타이난 문예작가 협회의 왕바오싱 회장 또한 이번 무자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스승님에 대한 우리 동수들의 경건한 마음을 보고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했다. 그는 세미나 도중에 ‘춘운(春運)’과 ‘홀로 새우는 밤(單夜)’, ‘한상(閒傷)’을 즉흥적으로 낭송하고 즉석에서 ‘閒傷’을 휘호했다. 왕 회장은 시를 낭송하며 스승님의 시와 혼연일체가 되었다. 감정이 가득 담긴 그의 목소리에 청중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두 눈을 감으시고 ‘마음’으로 다음 시를 들어 주십시오. 모두 다 영혼으로 연결되어 오늘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칭하이 무상사의 신성한 사랑을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했다.

타이난 문예 인사들은 모두 이번 세미나가 문인들을 위한 큰 축제였으며 아름다운 문학의 향연이자 칭하이 무상사와의 영적인 만남의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스승님의 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낭송되고 불려진 것

에 감탄을 표했다. 그들은 스승님의 『무자시』가 세계 불멸의 시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격찬을 하며 모두가 이 진귀한 작품을 소장할 행운이 있기를 희망했다.



‘무자시 세미나’에 모인 문예 인사들. 타이난 포모사어 한시회의 창시자인 천타이탄 회장(가운데 일어선 이)은 세미나가 끝난 후 즉시 방편법을 신청했다.



타이난 문예작가 협회 왕바오싱 회장이 스승님의 ‘춘운(春運)’을 즉석에서 읊고 있다.

무자시 휘호전

‘무자시 세미나’가 끝난 후 8월 28일 오후에는 타이난의 저명한 서예가 14인이 도서전 무대에서 무자시를 휘호했다. 관중들이 열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가운데 서예가들은 정신을 한데 모아 자유롭고 거침없는 힘찬 필치로 스승님의 무자시를 써 내려갔다. 작품들이 하나씩 완성돼 걸리자 행사장은 일순간에 풍부한 시적 분위기로 충만해졌다. 청중들은 시를 찬찬히 감상하며 다시 한 번 감동을 맛보고 스승님의 초연한 마음 경계를 즐겼다.



전통 가극과 ‘무자시’ 구연(口演)



8월 27일 저녁 동수들은 중국 음악을 배경으로 『무자시』를 전통 가극 형태로 선보인 데 이어 29일 저녁에는 『무자시』에서 선별한 시들을 이야기로 들려주었다. 공연 때는 청중들에게 프로그램 전단을 나누어 주고 슬라이드로 구술되는 내용을 영사해 청중들이 『무자시』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무자시 구연’은 무자시를 극본으로 삼아 얼후의 음악과 함께 공연되었다.

사회자인 라이준룽 선생은 무자시 구연의 이야기꾼을 맡아 『무자시』에 담긴 시들을 읊으며 구도 여정, 깨달음의 단계, 관음법문 전수, 세상을 황금시대로 이끄는 길 등 스승님의 다양한 인생 역정을 밝혀 나갔다. 구연 공연 도중 간간이 섞여 낭송된 19편의 무자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청중들을 깊이 감동시켰다!

이번 공연에 참석한 공연자들은 스승님의 『무자시』를 전통 가극 형태로 노래하고 낭송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얘기하며 리허설을 할 때마다 스승님의 고귀한 감성과 세상을 속박에서 구원하려는 정신에 감동돼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천국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도서전 내내 다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방편법을 신청했다. 이 신실한 구도자들은 방편법 명상을 하던 중 내면의 비전을 체험했으며, 대부분 삼매에 깊이 들어가 법희를 즐기기도 했다.

10년 전에 스승님의 책을 읽은 이래 줄곧 스승님의 인도를 느꼈다는 한 여성은 이번 기회에 마침내 수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쁜 표정을 지었다. 또



앞서 언급한 무자시 세미나에 참석한 천타이란 선생도 스승님의 시에 감동한 나머지 천국행 방편법 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 밖에 행사

장 근처에서 ‘명상법 무료 전수’라는 포스터를 본 청년 세 사람도 즉시 방편법을 신청했다. 그 중 이전에 명상을 해본 적이 있다는 한 청년은 “방편법을 배워 보니 올바르게 명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막이 내리다

2004 타이난 도서 박람회 마지막 날 저녁에 참석한 모든 동수들은 함께 명상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기념으로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이번 행사를 완벽하게 마감했다. 동수들에게 있어 이번 도서전은 신의 사랑의 바다에 잠겨 축복을 받은 심신과 영혼의 축제였다. 타이난 사형사저들은 황금시대의 기쁜 소식을 세상과 나눌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행사 기간 동안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수들의 신실한 헌신으로 많은 영혼들이 신과 연결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수들이 스승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단체명상에 다시 참가하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신의 무한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과 보다 겸손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도서전 행사 모습은 Sun TV ‘예술과 영성’ 제110집과 111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청 관련 URL: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영어 + 중국어 자막)

감사하는 마음

중국 본토 제자 (원문 중국어)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은 없다.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이 행성의 중생들에게 사랑의 봉사를 할 자격과 능력을 주시는 위대하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우리 삶을 이처럼 휘황찬란하게 빛내 주시고 날마다 성스러운 경계에 살게 해주시는 가장 위대한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칭하이 무상사의 제자가 되어 우주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운이 좋은 즐거운 부처들이 되게 해주신 신께 감사드린다. 가장 사랑하는 위대하신 스승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린다. 스승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이 세상 끝이라 해도 제자들은 영원히 스승님을 따를 것이다. 스승님은 우리의 단 하나 뿐인 분이시니까 말이다!

익을하게 막아도 고마워

청하이 무상사/ 1989. 2. 25. 포모사 중리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49



한 남자가 죄를 지어 사또에게 잡혀 갔습니다. 그는 곤장 100대를 받고는 더럭 겁이 났습니다. 다행히 부자라서 사또에게 뇌물을 바쳐 다른 사람이 대신 매를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가 한 가난뱅이에게 은 100냥을 주며 자기 대신 벌을 받으라고 하자 돈에 혹한 그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사또도 부자를 풀어 주었고요.

하지만 가난뱅이는 곤장 30대를 맞고 난 후 너무나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또에게 부자에게서 받은 돈을 전부 주곤 놓아 달라고 했지요. 가난뱅이는 풀려 나자마자 원래라면 벌을 받았어야 할 부자를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돈이 없었다면 전 맞아 죽었을 거예요!”



당신말고 당신 ‘말’이 필요해!

청하이 무상사/ 1996. 3. 28.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 선삼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541

돈은 엄청 많았지만 까막눈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부자가 그에게 심부름꾼을 통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글을 못 읽는다는 걸 들길까 봐 당황한 그는 심부름꾼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하며 조금 있다가 자신이 찾아가겠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는 편지를 읽어 줄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거였지요.

그러자 심부름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실 필요까진 없어요! 나으리의 말을 빌리려는 거지 나으리께 오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나중에 오실 필요가 없죠!”

죽어도 구두쇠 기집은 못 버려

청하이 무상사/ 1996. 3. 28.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 선삼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541



‘구두쇠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아주 인색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가자 염라대왕이 그를 마구 꾸짖었습니다. “이 구두쇠 귀신아! 너는 생전에 무엇이든 쥐고만 있고 아무에게도 나눠 주지 않았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봐도 돕지 않고 부모, 친척, 친구들도 돌보지 않아 그들을 굶주리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너의 이런 업장으로 보아 너는 끓는 기름 단지에 던져지는 게 마땅하다.”

아차가 구두쇠를 끓는 기름 단지로 데려가자, 그는 단지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잠깐만요! 기름이 너무 많잖아요. 왜 이렇게 기름을 낭비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기름을 팔아서 그 돈을 날 줘요. 그리고 날 끓는 물에 빠트리면 되잖아요! 기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이건 한 사람한테 쓰는 기름치고는 너무 많다고요!”



구사일생의 사건이 마을의 영성 고양을 이끌다

중국 본토 사저 (원문 중국어)

남편과 나는 6년 전 입문했는데, 그때부터 스승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은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특히 작년에는 16살 된 딸아이 샤오웨이(小偉)가 아파트 5층에서 떨어지기도 스승님의 가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스승님의 전능한 힘은 우리 딸을 구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후 연이어 기적들을 일으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함께 영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03년 10월 27일 저녁, 고모 집에 갔다가 마침 고모와 사촌이 야간 근무를 하는 바람에 집에 혼자 있게 된 샤오웨이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있다가 잘못하여 아래의 포장도로로 떨어지게 되었다. 바닥에 닿기 직전 2층에서 빨랫줄로 쓰이던 전화선에 걸리자 딸아이는 이 전화선을 잡으려고 했지만 선이 끊어져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샤오웨이는 의식은 분명한 상태였지만 한쪽 다리가 부러진 데다 척추를 다쳐 앓을 수 없었다. 딸은 주위를 살피던 중 한 남자가 눈에 보이자 도와 달라고 소리쳤다. 한밤중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샤오웨이는 응급차에 실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날 밤 다리 수

술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병원비를 낼 만한 형편이 안 됐던 우리는 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마을에 사는 동수들과 함께 명상하면서 스승님께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보살피 달라고 기도했다. 남편은 밤새 기도를 하고는 당시 약을 달인 사람도 없는 집에서 약초 냄새가 났다고 하면서 딸아이의 병원비를 대려면 적어도 2만 위안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음날 아침 다리 수술은 잘 끝났지만 척추 수술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 우리는 우선 마을 사람들에게 3천 위안을 빌려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내자 병원 측에서는 척추 수술을 하려면 1만 2천 위안이 더 든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다시 아는 사람들과 특히 한 사형의 도움을 받아 수술비를 빌릴 수 있었고, 수술은 다음날 성공적으로 끝났다.

병원에서는 명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마음속으로 스승님께 기도만 드렸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내면의 체험을 통해 화신 스승님이 우리 딸을 안고 있다가 남편에게 건네주며 “이제 아이를 돌려줄게요.”라고 말씀하시

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스승님의 보살핌으로 딸이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는 펴 듯이 기뻐했다. 한 달간 입원해 있는 동안 샤오웨이의 회복이 빨라서 의사들도 매우 놀라워했다. 그들은 “이런 큰 사고에서 살아나다니 앞으로 큰 복이 있을 거예요.”라고 했다. 정말 그랬다. 그 복이란 샤오웨이가 스승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딸아이는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스승님의 책을 읽고 우리와 함께 채식을 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딸에게 사고가 날 무렵 우리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한 사저는 며칠 동안 계속 우리 남편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가 우리 아이에게 일이 생겨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즉시 돈을 보내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한시름 덜어 주었다. 그녀는 나중에 “이건 정말 신의 안배예요.”라고 말했다.

회복 기간 동안 의사는 샤오웨이가 100일 정도는 있어야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100일은 순탄하게 흘러갔다. 그때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명상하던 중 화신 스승님이 남편에게 나타나 “아이는 이제 일

어나도 돼요!”라고 하셨다. 과연 그 말씀대로 샤오웨이와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다음날 병원에서 X레이를 찍어 보니 부러졌던 다리와 척추가 완벽하게 나아 있었다.

우리 아이가 합병증도 없이 사고

이후 너무나 빠르게 회복된 일은 곧 우리 지역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이 우리가 부처님을 믿은 덕분에 어려운 일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한다. 이 기간 동안 몇몇 주민들은 스승님의 책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

고 같은 마을의 동수들도 더욱 열심히 명상하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은 사랑하는 칭하이 스승님 덕분이다. 스승님의 전능하신 힘은 우리 딸의 생명과 영혼을 구해 주셨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영혼에게도 영성의 불빛을 밝혀 주셨다!

애완동물의 예방 접종, 1년에 한 번은 너무 잦다

(원문 영어)



애완동물의 예방 접종은 굳이 매년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재정적 낭비이자 잠재적으로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애완동물의 중대 질병을 위한 접종은 대부분 3년 또는 그 이상까지 효과가 지속되므로 매년 접종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애완동물을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 당국에서는 백신 제조사 측에 백신의 최대 효력 지속 기간 표시에 대해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 수의학과 대학의 수의 면역학자인 로널드 D. 솔츠 박사는 애완동물에게 어떤 백신을 접종하고 얼마 만에 접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인과 수의사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얘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세요.

1. 「애완동물은 매년 접종할 필요가 없다」

저자 레이 후퍼, 2002년 4월 22일자 『휴스턴 크로니클』에서 발췌

<http://www.bogartsdaddy.com/bouvier/health/vaccination-houston-chronicle.htm>

2. 「개와 고양이의 백신 접종, 너무 많고 너무 잦다?」

저자 T. J. 던 박사, 2002년 8월 26일 인터넷 동물병원

<http://www.thepetcenter.com/exa/vac.html>

애완동물 돌보기에 관한 스승님의 유용한 도움 말씀

1. 매일 잠들기 전 최소한 한 번씩 고양이이나 개의 온몸을 문질러 닦아 주고 젖은 천이나 종이 수건으로 발을 깨끗이 닦아 줄 것.
2. 2, 3주에 한 번 물과 식초를 반반 섞은 물로 온몸을 씻어 주고 젖은 천으로 닦아 줄 것.
3. 개나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을 씻길 때 화학 세제를 사용하지 말 것.
4. 두 달에서 넉 달에 한 번 애완동물에게 구충제를 먹일 것. 또 두 달에서 넉 달에 한 번은 진드기와 벼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

초창기 사제지간의 이야기

사제간의 신성한 사랑

야초



수정 같은 스승님의 눈: 1985년

동수들은 태양과 달을 뜻하는 스승님의 수정처럼 빛나는 두 눈이 중생들에게 거듭남을 가져다주는 원천이라며 두고두고 찬탄한다. 이 영혼의 거듭남은 수많은 동수들의 공통적인 체험이다. 그런데 스승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상에서 막 깨어났을 때의 나의 눈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 눈은 물빛으로 반짝거리는데,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게 안타까워요.”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나는 그 순간의 스승님의 눈을 보게 되었고, 그때 스승님이 하셨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단박에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어 참가한 선상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참가자들은 모두 자기 체험을 적어 내야만 했다. 사람들이 스승님의 방으로 체험을 적어 가져가는 것을 보고는 나도 내려 갔다. 하지만 뜻밖에도 스승님이 명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스승님을 방해할

까 봐 나는 서둘러 돌아 나오려 했다. 그런데 문에 닿기 전에 “누구예요?” 하고 부드럽게 묻는 스승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나는 스승님 옆에 체험 내용을 살그머니 내려놓았다. 바로 그 순간 스승님은 천천히 눈을 뜨시고는 웃으며 나를 보셨다.

스승님의 눈을 본 순간, 오, 세상에! 그 순수하고 깨끗한 기질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마치 온 우주의 사랑과 자비가 그 물빛 수정처럼 빛나는 두 눈에 비쳐 무한한 사랑의 바다로 변화하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불경의 보문품에서 자애로운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는 관음보살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이 떠오르면서 나는 스승님이 관음보살의 화현이라고 확신했다. 나중에야 스승님이 이 우주의 가장 높은 큰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내 평생 동안, 심지어 꿈에서 높은 경지로 올라갔던 경우에도 그토록 아름다운 눈은 보지 못했다. 지금은 그저

그 소중한 기억을 보물처럼 간직할 뿐이다.

수많은 중생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 주고 진리의 가르침을 들려주고 완벽한 비디오 화면을 보여 주기 위해 스승님은 종종 그 크고 아름다운 눈을 수천 와트의 강렬한 조명에 드러내셔야만 한다. 비디오에서 스승님이 손수건이나 휴지로 눈을 닦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칼로 에이는 듯 아프기만 하다. 스승님이 극심한 고통과 불편함을 견디시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씀하시고 웃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동수들은 간혹 카메라에 잡히거나 조명을 받게 되면 대부분 고개를 돌린다. 그건 카메라에 잡힐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그것을 바라마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강렬한 빛으로 인한 불편한 느낌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승님은 강연이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상황에 따라 적게는 한두 시간, 많게는 서너 시간가량 이런 불편함을 견디셔야 한다. 만약 불굴의 인내력과 고귀한 헌신의 정신이 없다면 이런 고통을 참을 수 없을 것이다. 때로 스승님이 손으로 눈에 그들을 만드시며 “이 조명 때문에 여러분이 안 보여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건 너무도 눈이 부셔서 그러시는 것이다.

스승님의 진귀한 ‘영혼의 창(窓)’이 겪었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눈물을 흘리곤 한다. 동수들은 비디오에서 스승님의 훌륭하고 재미있는 말씀을 즐길 때 스승님의 자비로운 희생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사랑이 넘치는 한 입: 1991년



상차림을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동수들이 있는 곳에서 환호성이 들려왔다. 스승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을 안 나는 비록 스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스승님의 모습이라도 볼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크게 떴다. 얼마 후 연푸른 전통 복장을 하신 너무나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스승님이 마치 천상에서 바로 내려오시는

어느 계절이든 선 행사나 대규모의 단체명상이 열리는 날이면 주방은 언제나 가장 ‘열기 넘치는’ 장소가 된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별처럼 분주하기 때문이다. 그해 여름 나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방 팀에 합류해 일요일이면 스승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시후 주방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날 단체명상에 참석한 미래의 부처들에게 점심을 공양하기 위해 야채를 씻고 써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어



듯 이쪽으로 다가오시는 게 보였다. 계속 걸어 내려오신 스승님은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없이 주방까지 예기치 않은 방문을 하셨다.

그때 한 장주가 튀김을 하고 있었는데, 스승님은 하나를 집어 맛을 보시더니 그 장주에게 한 조각을 ‘먹여’ 주셨다. 놓칠 수 없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한 나는 바로 “스승님, 저도 주세요!” 하고 소리쳤다. 그리고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다른 장주에게도 “빨리 와, 그것 놔두고!” 하고 불렀다. 그러자 무슨 일인지 알게 된 다른 사람들도 서둘러 모여들었다. 스승님은 자녀의 응석을 받아 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우

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음식을 먹여 주셨다. 스승님이 먹여 주신 음식으로 우리는 마음까지 달콤해졌다.

스승님은 종종 이렇게 예기치 않게 제자들에게 무한한 놀라움과 기쁨을 안겨 주신다. 또 시후 단체명상이 끝난 후면 가끔 우리와 함께 차를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시며 모두에게 이완할 기회를 제공하시곤 했다. 일과 이완됨에 조화를 이루는 문제에 대해 스승님은 “악기의 줄은 너무 조이면 줄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줄은 적당히 조여야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스승님께 드린 보잘것없는 선물: 1995년

시후에서 공식적으로 스승님의 사무실 낙성식을 치르는 날, 장주들은 과자와 사탕, 과일 등 축복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스승님이 도착하시기만을 기다렸다. 스승님을 환영하는 박수가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스승님이 약하고 지친 몸 상태로 한 장주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올라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보니 스승님께서 바로 전날 외국에서 돌아와 쉬지도 못한 채 준공식의 리본을 끊으러 오셔야 했던 게 떠올라 내 가슴은 너무나 아팠다.

목재 하나하나를 장주들이 직접 자르고 사포질을 하고 색칠을 해서 공들여 지은 이 나무 집은 인류를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시는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드린 보잘것없는 선물이었다. 우리는 이 건물이 스승님께 비바람을 막아 주고 편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길 간절히 기원했다.

스승님은 제자들의 헌신과 열성을 느끼시곤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을 생각이 없

었지만 여러분의 성심 어린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시다. 오늘 내가 여러분의 선물을 받는 것은 후세 사람들에게 나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알려 주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스승님은 가볍게 농담을 하셨다. “10년 동안 선생 노릇을 했다고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마침 스승님 옆에 있었던 나는 무심결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승님은 “정말이요? 세상의 선생님도 10년을 가르치면 이렇게 큰 선물을 받나요?” 하고 물으셨다. 이에 나는 “그건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하고 장난스럽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너무나 겸손하신 스승님은 수줍은 표정을 지으셨고, 이에 당황한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 스승님의 제자로서 사무실 같은 선물을 드리는 건 스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없는 은혜의 백만 분의 일 축에도 끼지 못하는 일이다.

체식:

전세계의 물 부족 위기에 대한 최상의 방안

데이비드 브룩스 사형/ 호주 퍼스 (원문 영어)

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SIWI)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지구의 수자원 남용으로 이미 다음 세대에는 물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다음은 2004년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린 SIWI의 연례 '세계 물의 주(周)' 회의에서 보고된 경악할 만한 사실들이다.

*지난 수십 년간 식량 생산 수치는 인구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현재 많은 세계인들은 그저 보다 많은 식량 생산을 위해 물을 고갈시키고 있는 셈이다.

*곡류를 먹여 키우는 식용 육류는 1킬로당 1만kg에서 1만 5천kg의 물을 필요로 한다. (이 수치는 효율 수치로 보자면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산업이 이런 효율로 운영된다면 진작에 다른 산업으로 대체되었을 것이다!)

*1kg의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400~3,000kg의 물이 소모된다. (육류 생산에 필요한 용수의 5%)

*거의 90%에 가까운 용수가 식량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

*이미 물이 부족한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사실상 육류의 형태로 물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 도상국의 육식 인구는 하루 5천 리터(1,100 갤런)의 물을 소비하는 반면 채식주의자들은 하루에 1천 리터에서 2천 리터(200~400갤런)의 물을 소비한다. (영국 『가디언』지 2004년 8월 23일자 보도)

SIWI 보고서 외에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아마존 우림에 콩 재배를 위해 개간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

다고 한다. 그러나 이 콩들은 소고기가 될 소 떼를 먹이는 데 쓰인다. 만약 이 콩들이 인류에게 직접 돌아간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많은 동수들은 『즉각 깨닫는 열쇠』 건본책자의 「왜 채식에 해야 하는가」에서 스승님이 말씀하신 육류 식품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떠올릴 것이다. “육류를 얻기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항상 결과가 뒤따릅니다. 열대 우림 파괴, 지구의 온난화, 수질 오염, 물 부족 현상, 사막화 현상, 에너지 자원의 오용, 그리고 세계적인 기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류를 생산하기 위해 땅과 물, 에너지,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지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인류가 세계를 먹여 살리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며, 채식은 바로 이러한 요구에 부합된다.

관련 자료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worldwatercouncil.org/>

<http://news.bbc.co.uk/2/hi/science/nature/3559542.stm>

<http://news.bbc.co.uk/1/hi/sci/tech/2943946.stm>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은 인류 생존의 근본이다

존 모튼 사형/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원문 영어)

최근 세계 도처의 과학자들과 정부 관료들의 보고에 따르면 지구의 환경이 극적이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크게 변하고 있다고 한다. 지구 온난화 현상, 이상 기온, 바다의 산화 및 물 부족 현상 심화 등의 문제들은 이미 뉴스에서 거론되고 있다.

영국 BBC 뉴스 세계판은 최근 이런 현상들을 온라인으로 연재했다. 2004년 8월 12일자 과학/자연 면의 기후 변화에 관한 기사에서는 지난여름 프랑스에서 수천 명이 극심한 더위로 사망했음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유럽과 북미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견했다. (<http://news.bbc.co.uk/2/hi/science/nature/3559426.stm>) 같은 기사에서 영국 국립 대기 연구 센터의 한 과학자는 “극단적인 날씨와 기후는 장차 날씨 변화가 인류 사회에 미칠 심각한 영향 중 일부입니다.”라고 소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난화(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해 대기가 가열되는 현상)가 최근 날씨 문제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석탄, 석유, 천연 가스 등 화석 연료 형태의 탄소를 태울 때마다 토양 안에 모여 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속으로 유입되는데, 일단 대기 중에 들어간 이산화탄소는 온실 유리창과 같은 역할을 해 태양열을 가두어 우주 공간으로 못 빠져나가도록 만든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과다해지는 주요 원인은 차량 운행과 발전을 위해 연료를 소모시키는 데 있다. 또한 세계적인 벌목도 이 문제를 가중시킨다. 벌목된 나무들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외 BBC 뉴스 세계판은 해수(海水)의 산성치 증가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http://news.bbc.co.uk/2/hi/science/nature/3571152.stm>) BBC는 국제 해양 연구 조직의 말을 빌려 바다는 매일 2천만에서

2천5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이산화탄소는 바다로 들어갈 때 탄산으로 바뀐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인간이 공기를 들이마시듯 어류는 물을 들이마시기 때문에, 바닷물의 산성 수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해양 생물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산호, 조개류, 심지어 어류의 기본 식량원인 플랑크톤과 같은 작은 식물 모두 산성치의 증가에 따라 큰 타격을 받는다.

다시 육지로 이야기를 돌려 보자.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오염은 세계의 신선한 용수 공급원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다. 또 지구 온난화는 강수량 패턴에도 막대한 변화를 가져와 일부 지역에선 빈번한 홍수를 발생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정리하자면 깨끗한 물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을 위해 전체 깨끗한 물의 70%가 소모되고 곡물을 먹이는 가축에는 곡물을 재배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소모되기 때문에 육식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식량 부족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에 따르면 “후대에는 현재와 같은 서유럽과 북미에서의 식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한다. (<http://news.bbc.co.uk/2/hi/science/nature/3559542.stm>) 관음 수행자들은 채식은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식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육류 부족은 부유하거나 가난한 나라 모두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위에 언급된 문제들과 재앙들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수행자들은 온 우주가 영성과 감성, 그리고 물질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호 작용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리 현상들이 인과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자원 고갈 현상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물질적인 편리를 위



해서 다른 사람, 동물, 식물,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 의존하고 있는 물과 공기의 복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내면으로 신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신은 바깥 세계의 자연 재해를 통해 우리를 일깨우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만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부주의해질 때 자연을 통해 인과응보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동차를 몰고 냉난방 장치가 갖춰진 집에 살며 음식과 물, 전기가 공급되는 대도시에서 일하고 즐기면서도 이런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만들어 내는 오염에 대해서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리고 간혹 어쩌다가 이런 자원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잠깐 스쳐가듯 생각할 뿐이다. 기술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전문 기술자와 공학자,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단체와 정부 관료들은 흔히 개인적 이익과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그것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곤 한다.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긴 이러한 문제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으니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동을 개선해 신과 자연에 더욱 조화롭게 다가서야 할 것이다.

관음법문 수행자는 깨달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각자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인류 또한 깨달아야만 그 의식을 공감할 수 있다. 칭하이 무상사는 일찍이 진정으로 우주의 운행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과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러므로 신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를 위해선 자연 재해로 인류를 석기시대로 되돌리는 것이 인류가 일으킬 핵전쟁이나 유전자 사고로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파괴시키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과학 기술이라는 장난감을 현명하게 다룰 줄 모른다면 신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그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

요약하면, 오늘날 이 행성에는 60억에 달하는 인류가 살고 있다. 우리 인류가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다가오는 수십 년 동안 이 세상을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습관과 사고를 모두 개선해야만 한다. 우리가 신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고 행동한다면 그 인과의 결과들을 치르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자연 속에서 신을 보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황금시대에 배우고 자라는 과정은 참으로 복될 것이다!

사제지간의 편지



2004년 8월 15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이가 스승께 감사드리며

엘라드 야곱 사형/ 카메룬 쿼바
(원문 영어)

사랑하는 스승님께

스승님께서 지구의 수십억 인류 중에서 저를 선택해 관음법문에 입문시켜 주시고 또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것이란 걸 생각하면 한없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그 길에서 마주치는 어떤 장애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집에 도달할 때까지 스승님의 성스런 보호를 받을 것임을 אני 까요.

우리 여행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흥미롭고 즐겁길 바랍니다! 저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영원히 사랑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이
엘라드 야곱 드림



포모사 태풍 재해 구호 활동 보도

(원문 중국어)

포모시는 최근 연속적인 태풍과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청하이 무상시는 이번 재난에 우려와 관심을 나타내시며 피해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수행하도록 전국 센터에 지시하였다. 아래는 이 재난 구호 활동에 대한 보도이다.

타이베이

무상사 구조협회 보도

2004년 8월 말 태풍 에어리가 포모사를 강타해 곳곳을 황폐화시켰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포모사 북부 지방으로 인명과 재산상 큰 위협을 당했다.

9월 4일 새벽, 무상사 구조협회(중화 수륙 양용 구조대의 후신)는 타이베이 현 소방국으로부터 긴급 구조 요청을 받았다. 태풍 에어리로 인해 강우량이 갈수록 증가해 지렁강이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구조대는 지프차에 고무 보트를 싣고 타이베이 현 시즈 소방국 시우핑 분대에 도착해 대기했다. 그후로도 폭우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재해 대책 본부는 피해 지역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그러다 정오 무렵, 구조협회 대원들은 타이베이 현 정부 소방국의 재해 대책 본부로 옮겨 재해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나중에 구조대는 타이베이 현 소

방국으로부터 시즈 먼 형제 리에서의 구조 활동을 요청받고 홍수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2명의 조난자를 고무 보트로 안전하게 구해 냈다.
이 임무를 마친 후 구조대는 피해 지역에 남아 복구 활동을 돕다가 사회
국이 충분한 지프차를 지원받아 기동할 수 있게 된 후에야 안심하고 철수
했다.

감사 편지

(원문 중국어)

2004년 9월 30일

무상사 구조협회 귀중

태풍 에어리과 2004년 9월 11일 수해로 우리 현의 몇몇 면과 시에서는 심각한 재난이 발생해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난 손실을 낳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여러분의 긴급 지원과 방역 활동 및 복구 활동 그리고 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최단시간 내에 복구 활동을 수행해 시민과 학생이 정상적으로 삶의 터전과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재난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신 여러분의
노고는 실로 우리 주민들의 복으로서 그 은
혜는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이에 편지로
나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전하고
자 합니다.

2004년 9월 30일

타이베이 현 현장대리 린스야오 배상



타오위안

사랑의 샘물이 스승님에 대한 신심을 샘솟게 하다

타오위안 뉴스그룹



2004년 8월 태풍 에어리로 엄청난 양의 진흙과 바위, 토양, 나무가 스면 저수지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다량의 침전물로 인해 급수 시설이 막혀 남부 타오위안 주민들은 2주 이상 물 없이 생활하는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 2주는 스승님을 따라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타오위안 동수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움 속에서 스승님의 사랑과 센터의 박애 정신을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2002년 포모사가 극심한 물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시 미국 선 행사에 참가한 포모사 동수들에게 스승님은 우물을 파서 식수난에 대처하라고 하셨다. 지금에 와서 가볍게 말씀하신 그 제안을 생각하면 스승님의 선견지명이 경탄스러울 뿐이다.

다행히 타오위안 센터에는 원래 우물이 있어서 다시 팔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남부 타오위안의 단수 소식을 들은 연락인은 그 순간 스승님의 이전 제안이 생각나 각 지역 연락인을 통해 피해 지역의 동수들이 타오위안 센터의 우물을 쓸 수 있도록 공지했다. 단체명상 때에도 다음과 같은 공지 내용이 한 번 더 발표되었다. “우리는 관음 대가족으로 타오위안 센터의 물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지역 동수님들은 센터에 와서 물을 쓰십시오.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이 따뜻한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동수들이 물을 떠 가고 가족들도 데려와 센터에서 목욕하고 채소를 씻고 빨래도 했다. 2주 동안 사람들은 정말 가족 같은 마

음으로 밤낮으로 물을 함께 나누어 썼다. 타오위안 센터의 사랑이 가득한 보살핌은 동수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더욱 가깝게 이어 주었다.

이 식수난은 또한 사람들에게 무상하고 예측 불가능한 물질 세계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 주기도 했다. 일부 동수들은 “이 환상의 세계는 정말 손쓸 틈도 없이 재난이 계속되네요.” 하고 심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 보다는 감사의 말이 먼저였다. 타오위안 센터에 와서 채소를 씻은 한 사저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다행인 건 우리가 관음 대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수들은 모두 진정으로 깨달은 스승을 따라 수행하여 이런 무상한 세계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정말 다행이지 않을 수 없다!



신주

구호품을 산간 마을에 운송하다

신주 뉴스그룹 보도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에어리의 영향으로 포모사 곳곳에 큰 홍수가 발생했다. 무상사 구조협회는 신주 재해 지역의 요청을 받고 구호 활동에 힘을 모았다. 무상사 구조협회는 정부의 소방·재해 부서와 수년간에 걸쳐 손발을 맞춰 구호 활동을 해 오면서 효율적이고 협조적인 작업 수행과 기술에 대한 깊은 조예로 포모사에서 가장 믿을 만한 구호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구조협회는 8월 26일 저녁 지역 재해 대책 본부의 루 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즉시 구호 활동을 개시했다. 다음날 새벽, 3대의 지프차를 몰고 신주 현 사회국 앞 광장에 집결한 구조대는 대책 본부와 상황을 논의한 후 물자를 수송하는 헬리콥터가 착륙할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엔스 향에 구호 물자 운송을 돕고 더불어 재해 상황을 파악해 본부 측에 알려 주는 두 가지 임무를 맡았다.

그날 아침 구조대는 3대의 지프차에 침낭과 담요가 주를 이룬 구호 물자를 가득 싣고 지엔스 향사무소로 출발했다. 향장은 오지의 각 부락 주민들에게 물자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재해 지역과 통신이 두절되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며 재해 지역에 가서 도로 상태를 파악해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부탁을 받고 지아려와 신러, 두 마을에 도착해 보니 부근의 나루어 강이 범람해 도로가 전부 유실된 상태였고, 향공소 측에서 보낸 굴착기가 도로를 복구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었다. 구조대는 지엔스 향장과 신주 재해 대책 본부에 재해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무사히 임무를 끝냈다.

이 밖에 태풍 에어리는 신주 현 우평 향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

우평 향 타오산 마을 주민들은 쫓기듯 대피해 신주 현의 ‘런아이 집’과 인근 타오위안 현의 한 군부대에 임시 숙소를 잡았다.

우평으로 가는 도로가 최근 다시 복구되고 부대에서도 예비군 훈련으로 숙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일부, 또는 전부 무너진 집을 다시 짓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태풍 이재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 마을 내에 있는 이재민 수용소에도 생필품이 부족해 이중으로 고통을 겪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평 향 주민 대표들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측에 연락해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아낌 없는 도움을 받았다.

신주 센터 동수들은 9월 24일 이 소식을 들은 후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이재민을 위한 생필품 구입에 나섰다. 상점 주인들은 구입 목적



을 알고는 가격을 특별히 할인해 주고 우리 주문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었다.

25일 오후 16명의 동수들은 주동에서 모은 물자들, 즉 침낭 200개, 샐러드유 204통, 빨래용 가루비누 100포, 소금 216포, 새 옷 및 헌 옷 9 상자를 8대의 트럭에 나눠 싣고 우평 마을로 향했다. 주민회 대표인 린 시앙싱 씨의 환대 속에 동수들과 주민들은 구호품을 우선 린 씨의 집 앞에 내리고 나중에 세 곳의 이재민 수용소로 보내 구호품을 전해 주기로 했다.

작업에 참여한 한 동수는 많은 피해 상황을 목격한 후 이렇게 말했

다. “재난 지역에 와 보지 않은 사람은 재해 지역의 참상을 상상도 못 할 겁니다. 단순히 세상은 덧없다는 말로는 부족하지요. 우리는 운명과 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섭고도 무상한 경험을 통해 수행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그리고 수행이야말로 해탈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ですよ!”

타이중

스승님의 사랑이 오지 마을 구석까지 전해지다

타이중 뉴스그룹



바시엔 산맥과 다지아 강을 옆에 끼고 자리잡은 타이중 허핑 향 보아이 촌의 ‘송허 부락’은 흔히 ‘물 좋고 산 좋은 곳’으로 불린다. 그러나 불행히도 태풍 민들레와 에어리로 발생한 이류(泥流)로 백여 가구가 떠내려가고 하룻밤 새 그 아름다운 풍경과 평화를 잃게 되었다. 재난이 발생한 후 정부의 보조와 민간 단체로부터 지원의 손길이 닿았지만 아직도 복구해야 할 곳이 많이 남아 있었다.

타이중 센터는 스승님의 지시를 받고 바로 타이중 재해 지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아직도 많은 이재민이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동수들은 10월 7일 어려운 상황 속에 홀로 살고 있는 보아이 촌의 노인 가정 38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다. 또 학생 23명에게 학비 보조금을 전달하고, 송허 마을 재건 위원회에 탁상용 컴퓨터 2대, 휴대용 컴퓨터 1대, 디지털 카메라 2대를 기증해 재건 사업에 쓰도록 했다.

이번 재난 구호 활동에 참여한 동수들은 보아이 마을 주민들의 기쁨과 만족뿐 아니라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사랑도 느낄 수 있었다. 멀리 해외에 계시지만 구석진 곳까지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스승님의 경이롭고 자비로운 관심에 동수들은 깊이 감사드렸다.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송허 마을 재건 위원회 황용광 주임(오른쪽)에게 위로금과 함께 컴퓨터 설비 등을 기증했다.

중국 홍수 재해 구호 활동 보도

기세 등등한 홍수가 끝없는 사랑에 압전해지다

홍콩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4년 9월 초, 며칠간 계속된 집중 호우로 중국 북동쪽 스촨안 성 지역 일대가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200년 만에 최악이라는 이번 재해로 수십만 가구가 물에 잠겼다. 자비로운 스승님은 홍수 재해 소식을 접하신 후 이재민을 위해 많은 금액을 기증하시는 한편 홍콩 동수들에게 수해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셨다.

스승님의 지시를 받은 후 홍콩 동수들은 곧바로 구호 팀을 결성하고 스촨안 성의 재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피해 지역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구호 팀은 3개 조로 나뉘어 대륙 동수들의 지원을 받아 다조우 시와 카이 현, 취 현, 쉬옌한 현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카이 현

중칭 북부에 위치한 카이 현은 홍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9월 5일 새벽 수위가 급속도로 상승해 많은 촌락과 구 시가지 일대가 물에 잠겼으며, 3층 높이까지 차 오른 물은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다. 특히 농촌 지역의 피해가 심해 대부분의 가옥이 무너지고 밭이 진흙에 묻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9월 17일 카이 현에 도착한 동수들은 재빨리 재해 상황을 파악했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몸 상태가 좋아서 하루 만에 6개 지역의 연락 체계를 세우고 준비를 끝낸

후 수재민에게 필요한 구호 물자 구입도 순조롭게 마쳤다.

구호 팀은 9월 21일 새벽 카이 현에서 가장 타격이 큰 산허, 중허, 펑리, 주시 등지에 도착해 하룻밤 새 50kg짜리 쌀 630포대, 이불 378채, 국수 550kg, 과자 500kg, 그리고 밤새워 포장한 사탕과 월병, 스승님의 사진이 든 꾸러미를 어려운



카이 현 산허 마을로 운반되는 식량.



카이 현 중허 마을의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쌀과 이불, 월병을 받고 있다.



쌀과 과자 등의 물품을 나눠 받고 있는 카이 현 징취엔 마을 주민들.

가정에 나눠 주었다. 많은 이재민들이 구호품을 받고 크게 감동했는데, 험상궂게 생긴 한 남자조차 스승님의 선물에 눈물을 흘렸다. 주민들은 누군가가 이 멀리까지 험한 흠탄길을 뚫고 도와주러 오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주시 지역 당국은 동수들의 이러한 노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진 세 장의 표창장을 전달해 감사를 표했다. “홍수

는 무정해도 인간 세계에는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큰 자비심과 아낌없는 도움이 수재민의 가슴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조우 시

다조우 시에 도착한 후 구호 팀은 먼저 수해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조사한 후 지역 도매상에 구호 물자를 주문했다. 상점 주인들은 동수들의 구매 목적을 알고는 자발적으로 물건 가격을 깎아 주고 여러 형태로 도움을 주었다. 어딜 가나 인정은 살아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이는 한 이불 가게 주인이었다. 그는 처음에 인조 솜으로 만든 값싼 이불을 권했으나 동수들은 그런 이불로는 추위를 견딜 수 없다며 겨우내 수재민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좋은 이불을 달라고 하고 수건도 가장 좋은 것으로 샀다. 상점 주인과 직원들은 동수들의 이런 성심에 깊이 감동했다. 특히 주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가격을 할인해 주고 포장까지 도와주었다. 그 순간 동수들은 우리가 정말 신의 자비로운 품안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주인은 다음날 동수들과 함께 다른 현과 시까지 동행해 다른 물품 구입을 안내해 주었는데, 하루 종일 동수들과 다니느라 점심도 거를 정도였다. 이번 구호 활동은 홍콩과 중국 사람들이 동포애를 가지고 함께 일하고 중국인의 가슴에 사랑의 씨앗이 싹터 자랄 수 있었던 기회였다.

9월 23일 구호 물자를 가지고 진룽에 도착한 구호 팀은 마을 사람들과 당 서기의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주민들은 물품을 받고 뿔 듯이 기뻐했으며, 모두들 강렬한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신이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다. 당 서기는 우리 사형사자들이 이웃한 두 마을로 물품을 나눠 주러 갈 때 동행하기도 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구호 팀은

온정과 단결된 힘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가운데 자신들의 사랑을 주민들과 나눌 수 있었다.



수재민들로부터 재난의 여파에 대해 경청하고 있는 동수들.



다조우 시 진룽 마을 주민들은 스승님의 사랑이 든 구호 물자를 받고 크게 기뻐했다.



취 현

9월 19일 오후 구호 팀은 취 현에 도착하는 대로 수해 지역의 이재민들을 방문했다. 위안바오 향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은 건물 2층까지 물이 차 올랐고 몇몇 농가들이 물에 떠내려가기도 했으나 다행히 이 지역 적십자사에서 시급한 물품들을 먼저 공급해 주어 우선 곤경은 면했다고 얘기했다. 다음날 새벽, 동수들은 차를 빌려 바오청 마을로 향했다. 가는 길이 온통 진흙과 홍수 잔해들로 가득 차서 차가 빠지는 바람에 목적지까지 두세 시간이 넘게 걸려야 했다. 결국 피해가 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물두 가구를 찾아 이재민들의 연락처를 기록한 후 그곳을 떠났다.

동수들은 다음날 일찍 쌀과 식용유, 이불 등의 물품을 구입한 후, 바오청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에 마을로 전화해서 가까운 시장



바오청의 시장에서 구호 물품을 나누어 줄 준비를 하는 모습.

에 구호 물품을 맡겨 놓을 테니 찾아가라고 알려 주었다. 이어서 구호 팀은 다음 행선지인 쉬옌한 현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쉬옌한 현 상륙

9월 23일 오전 쉬옌한 현 상륙에 도착한 동수들이 재해가 가장 극심한 외진 탄광촌 두 곳을 방문해 보니 40여 가구가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동수들은 즉시 차로 두 시간을 달려 인근 도시에서 필요한 물품을 산 뒤 다시 석탄 트럭을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넘어 돌아왔다. 도착하

자 날도 어두워졌고 옷도 새카맣졌지만 동수들은 봉사의 기쁨을 안고 쌀과 이불을 내려 이재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쉬옌한 현 우바오

2004년 9월 초부터 연일 계속된 폭우는 티엔타이 향의 산을 깎아 내려 어마어마한 경사면을 만들어 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이 재난으로 많은 진흙과 바위가 산 아래쪽 계곡으로 쓸려 내려가 거센 강물을 가로막는 높이 2.5km의 댐이 저절로 형성되고 수심 2.5km의 호수가 순식간에 생겨났다. 이에 따라 물줄기가 막혀 범람한 강물이 20km에 달하는 지역을 덮어 우바오 시내와 8개 부락을 포함한 우바오의 4/5가량의 지역이 큰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3만여 명의 주민들이 사고 직전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정부는 산언덕에 임시 막사를 설치하고 매일 음식과 기름을 배급했다.

구호 팀 여덟 명은 9월 22일 이 수해 지역을 향해 험난한 여정에 올랐다.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차를 몰고 간 후 그 뒤부터는 산사태로 떠내려 온 바위가 잔뜩 깔린 흙탕물을 헤치고 새로 생겨난 호수까지 40여 분을 걷고 다시 30분가량 모터보트를 타고서야 수해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재난 대책 본부에서는 계절이 벌써 초가을이기 때문에 이불과 외투, 신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알려 주었다. 이에 동수들은 다음날 새벽 다조우에 전달할 물품을 산 후 그 지역 재해 수송 팀에 연락해 다음날 운반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우바오 수재민들이 임시 피난처로 지내고 있는 천막.



빗속에서 구호 물품을 나눠 주고 있는 구호 팀.

수송 팀은 산길 우회도로를 통해 8시간가량을 달려야 했다. 물품을 구매하는 동안 동수들의 성심과 사랑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동시켜 운전기사와 상점 주인들, 점원들 모두 기꺼이 준비 작업을 도와주었다.

9월 24일 새벽 5시, 동수들은 이불 1천 채, 신발 1천 켤레, 옷 1,150벌 등의 구호 물품을 트럭 다섯 대에 나눠 실었다. 당시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때라 동수들은 수해 지역의 학생들에게 줄 선물로 사탕과 과자가 든 13상자와 월병 3,000개도 함께 준비했다. 역수같이 퍼붓는 빗속에서도 수송 팀은 아침 7시에 출발했고, 동수들은 다른 가까운 길로 재해 지역으로 향했다. 가차없이 쏟아지는 비는 안 그래도 힘든 바위투성이의 흙탕물을 더욱 건너기 힘들게 만들었다. 동수들은 오후 3시쯤 우바오 부근의 호숫가에 도착해 태워 주기로 약속된 배를 기다렸다. 모두들 비에 흠뻑 젖었지만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으며, 수송 팀이 무사히 도착해 우리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린다는 재해 본부의 전화를 받고는 한층 더 기운을 냈다.

우바오에서 구호품 전달을 마친 후 완전히 지친 상태로 동수들이 재

해 대책 본부에 도착하자 대책 본부 직원들은 우리의 모습에 감동해 귀환 차량을 즉시 구해 주었다. 지방 공무원들이 준비한 감사장 수여식을 마치고 물건들을 모두 내리자 시간은 벌써 오후 5시 반이 넘어 있었다. 동수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흙탕물을 건너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을 서둘렀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스승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날이 완전히 저물기 바로 직전에 고속도로에 도착해 정부에서 준비해 준 차를 타고 무사히 여관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우바오의 재해 지역을 점검하기 위해서 빗속에 돌무더기로 가득한 흙탕물을 건너고 있는 동수들.

맺음말

2004년 스추안 성 재해 구호 활동에 참가한 동수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복이다.’라는 이치가 정말 그렇다는 것을 확실히 체득하는 한편, 모두들 영적으로 성장함과 아울러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절묘한 안배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비록 구호 팀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신은 필요한 때 순간마다 가장 알맞은 사람들을 보내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해서 동수들은 신의 인도 속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포용, 협동 정신과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의 의식 고양도 느낄 수 있었다. 순박한 산골에서 도시 지역까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매우 순수하고 단순했으며, 구호 활동 기

간 중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다. 사형사저들은 때로 재난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자비심과 양심을 일깨우고 인생의 무상함을 알려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오직 수행을 해야만 고통을 넘어 기쁨의 경지로 고양되고 우리 자신의 신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도구인 것이다.

인도 홍수 재해 구호 활동 보도

살아 있는 부처의 사랑이 옛 부처의 땅을 돌보다

싱가포르 구호 팀 (원문 영어)

2004년 9월, 24시간 이상 계속된 호우가 히말라야의 눈을 녹이고 흘러내리게 하여 인도 북부의 우타르 프라데쉬 지구를 삽시간에 침수시켰다. 이 지역은 석가모니 부처가 생전에 오랜 세월 동안 진리를 설법하며 지낸 지방이다. 스승님의 자비로운 지시를 받은 싱가포르 동수들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인도로 향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프라데쉬의 수도인 루크노우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라크힘푸르 지구였는데, 루크노우에서 30~110km 거리 안에 있는 다른 마을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홍수로 흠집 수천 가구와 전 지역의 농작물이 휩쓸려 내려갔다.

루크노우에 도착한 후 피해 지역의 실정을 점검해 보니 수재민 중 상당수가 부녀자와 어린이, 노인으로서 집도 없이 무일푼인 상태였다. 동수들은 존장과 이야기를 나눈 후 이재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물품의 목록을 만들고 즉시 구매에 나섰다. 스승님의 놀라운 안배로 묵고 있던 여관의 큰 홀을 대여할 수 있게 된 동수들은 43톤의 구호 물자를 운반해 가지고 와서 포장까지 하게 되었다.

우리는 10월 7일, 구호품을 분배하기 시작했다. 길이 좁고 매우 울퉁불퉁해서 가기가 어려웠지만 스승님의 인도로 분배 작업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우리는 피해를 입은 1,500여 가구에 식량과 텐트, 막사용 캔버스 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과 간식 등의 구호 물품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때로 일이 설새없이 진행되었지만 모든 구호 팀원들은 우리를 포근히 감싸고 임무에 전념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스승님의 강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를 태우고 구호품 배급을 하러 다닌 기사들조차 스승님의 가르침에 감동한 나머지 구호 활동을 도와줄 정도였다.





우리는 또 루크노우 강변의 수재민들도 방문해 도움을 주었다. 원래부터 가난하고 생활이 곤란했으나 이번 홍수로 더욱 살기 어려워진 이들은 식량과 위로금을 받고선 크게 기뻐했다.

구호 활동은 10월 9일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활동에 참가한 모든 동수들은 매우 큰 기쁨과 축복을 얻었으며, 이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완벽한 신의 안배를 목격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무아와 자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동수들을 도움으로써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길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CD-CG07 <중국어>

수행의 힘으로 세상을 고양시키자

2002. 8. 4./ 8. 11./ 9. 15. 포모사 시후/ 홍콩/ 중국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내용 요약: 신의 축복과 인류의 기술 진보 덕분에 전세계 각지의 동수들은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해 스승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수행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매체를 통하여 청중들은 비디오 화면으로 여전하신 스승님의 재치 넘치는 말씀을 듣고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받을 수 있었다. 시공을 초월한 이 통신 매체는 스승님과 스승님께 감사해마지 않는 제자들 간의 물리적 거리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CD-E 733 <영어>

고귀한 목적을 품고 살아라

2001. 6. 10. 미국 플로리다 단체명상

내용 요약: 어떻게 일상생활의 작은 행동이 재미같이 작은 존재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가? 영혼이 때로 '수행의 겨울'을 겪어야 하는 까닭과 이를 극복할 방법은? 신의 뜻과 우리의 자유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매우 유익한 이 강연에서 스승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하시는 한편, 모든 동수들에게 보다 이상적이고 교통도 편리한 해변 센터를 찾아 주시기 위해 밤낮으로 천신만고를 겪으신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라!

러시아 학교 인질 참사 구호 활동 보도

사랑은 최고의 처방

싱가포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4년 9월 1일은 원래 러시아 북오세티아 공화국 베슬란 제1 중학교의 개학날이었으나 무장한 괴한들이 학교로 난입해 약 1,200명을 작은 체육관으로 몰아넣고 인질로 삼는 일이 발생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는 악몽의 하루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번 참사를 접하신 자비로운 스승님은 동수들에게 희생자들을 위로하도록 지시하셨다. 이에 독일과 싱가포르 동수들로 구호 팀이 조직돼 러시아로 향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구호 팀은 두 명의 러시아 동수들과 함께 북오세티아 위기 관리 위원회를 만나러 갔다. 이 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내외의 원조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사고 후 수백 명의 부상자가 베슬란과 북오세티아의 수도인 블라디카브자스, 그리고 모스크바의 병원으로 수송되었는데, 우리는 위원회로부터 모스크바 내 25개 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부상자들의 명단을 받아 들고 환자들을 만나러 출발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세르브스코고 의료 센터에서 환자들에게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구호 팀은 즉시 물품을 구입해 선물 꾸러미에 담아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또 사형사자들은 환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얘기를 들어 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환자들 중에는 해당 학교의 어린이와 학부모,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공무 수행 중 다친 경찰관 등이 있었는데, 모두들 화상이나 파편이 박히는 등의 신체적인 부상 외에도 큰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그 중 코코에바 리아나 여사는 다섯 명의 아이를 구하고 결국 수술도 두 차례 받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다. 이에 동수들은 리아나 씨처럼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에게는 추가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우리는 모스크바 내 병원에 있는 베슬란 환자들에게 총 145개의 선물 꾸러미를 전하는 한편, 북오세티아 대표부에도 23개의 선물 꾸러미를 보내 우리가 방문하지 못한 다른 환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구호 팀은 이어서 블라디카브자스로 날아가 블라디카브자스와 베슬란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과 생존자들을 방문했다. 베슬란 병원에서 만난 한 남자는 이번 참사로 아내와 자녀, 동생, 동생의 아이들 등 여섯 명



의 가족을 잃었지만 오로지 신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했다. 동수들은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그를 위로하면서 스승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위로금과 영성 자료 등의 꾸러미를 선물했다.



병원 방문을 마친 후 동수들은 베슬란 참사 현장을 찾았다. 지붕이 날아간 채 새카맣게 그을린 중학교 체육관엔 채 생화와 러시아, 전세계 사람들이 보내 온 위로의 글과 촛불, 장난감, 사진, 사탕과 음료수 등이 가득 늘어져 있었다.

이어서 구호 팀은 베슬란의 중앙 행정청을 찾아가 중학교 근처에 사는 80여 가구를 방문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이들 가구에 위로금 88봉투와 견본책자 몇 권을 전달했다.

다음날,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구호 팀은 이번 참사에서 살아남은 베슬란 중학교 교직원 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가정 방문을 계속했다. 많은 가정에서 동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음식과 차를 함께 들자고 권했다. 우리는 위로금이 든 봉투 200개를 희생자 가족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모습에 대해 궁금히 여기자 동수들은 스승님의 작은 사진을 보여 주고 나누어 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사진 속 아름다운 미인의 모습에 깜짝 놀라며 그분이 자신들에게 선물을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우리는 블라디카브자스와 베슬란에서 총 297개의 위로금 봉투를 전해 주고 남은 13개의 봉투는 모스크바 연락인에게 주며 베슬란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돕도록 했다.



구호 팀이 모스크바 병원을 방문한 후 한 베슬란 환자가 모스크바 센터로 방편법을 배우고 싶다는 전화를 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갓 퇴원해 베슬란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구호 팀은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방편법을 배울 수 있도록 안내했다.



러시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수들은 중학교 참사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참사 중 일어난 폭발에서 아이를 보호했던 한 교사는 동수들의 정신적·물질적 도움에 매우 고마워했다. 이번 재난을 겪은 다른 많은 사람들 또한 그녀와 마찬가지로 아픔을 함께 나누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 감동하며 러시아를 직접 방문해 위로금을 전해 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큰 위로가 되었다며 스승님의 염려와 도움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그레나다 허리케인 재해 구호 활동 보도

향신료의 섬을 격려하신 스승님의 사랑

빈센트 응우엔/ 미국 버지니아 (원문 어울락어)

그레나다는 카리브 해와 대서양 사이에 위치한 인구 100만의 평화로운 섬나라다. 관광 자원이 이 나라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코아, 정향, 계피, 생강, 육두구 같은 농산물 수출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세계 육두구 생산량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그레나다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육두구를 많이 생산하고 있어 '카리브 향신료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04년 9월 7일, 그레나다의 평화로움은 49년 만에 처음 겪는 강렬한 허리케인 이반의 공격으로 깨어지고 말았다. 허리케인 이반은 그레나다에 상륙하면서 최고 풍속이 시속 150마일(시속 241킬로미터)에 이르는 4급 폭풍으로 더욱 강력해졌다. 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은 남부의 세인트 조지, 세인트 앤드루, 세인트 요한 지역으로 케이스 미첼 총리와 다니엘 윌리엄스 총독의 자택을 비롯한 가옥의 90%가 파괴되었다. 이 섬의 2대 작물인 코코아와 육두구도 완전히 쓸려 나갔는데, 육두구 나무의 경우 다시 자라기까지 7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 밖에 그레나다의 주요 관광 호텔도 대부분 큰 피해를 입었다.

자비로운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동수들은 2004년 9월 24일 그레나다로 날아가 구조 활동을 수행했다. 그레나다에 도착해 보니 허리케인 이반이 지나간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전기와 전화 설비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고 일부 가정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 결과 해가 지고 나면 온 나라가 어둠에 잠겼다. 상점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그나마 문을 연 상점도 정오까지만 영업을 했으며, 상점과 관공서조차 전기와 전화가 끊긴 상태였다. 많은 상점 주인들은 그때까지도 허리케인으로 부서진 지붕과 창문, 다른 시설들을 고치느라 여념이 없었고, 도로는 쓰러진 전선과 전봇대로 인해 교통이 두절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에선 저녁부터 새벽까지 통행 금지를 선포해 긴급 유지 보수 요원들이 전기와 전화, 상수도를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몇몇 대형 항공사가 그레나다로의 운항을 무기한 정지시킨 바람에 구호 팀 동수들은 이곳에서도 물품을 사지 못하고 외국에서도 물자를 구해 올 수 없었다.

구호 활동을 하는 동안, 동수들은 택시 운전기사를 고

용해 마르퀴스 섬 인근 해변을 비롯해 피해가 가장 큰 세 지역을 돌며 가옥이 완전히 파괴된 많은 가구에 들러 위로금과 견본책자를 전달하면서 이들이 신의 사랑으로 위안을 얻고 안정을 되찾기를 희망했다.

반세기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을 겪었지만 그레나다 국민들은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 평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부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고, 일부는 신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동수들을 통해 선물을 보내신 거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허리케인으로 부서진 집에 여덟 식구가 모여 사는 가정의 어머니는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스승님께 편지를 보낼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주소를 물어보기도 했다.

구호 팀이 이 아름다운 섬을 떠나던 날, 그레나다 출신의 운전기사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어



려울 때 도움을 주신 청하이 무상사
 께 감사의 말을 전해 달라고 했다고 우
 리에게 얘기했다. 동수들은 이 나라
 가 하루빨리 복구되고 ‘카리브 향신
 료의 섬’ 사람들에게 신의 사랑이 가
 득한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했다.



자메이카 허리케인 재난 구호 활동 보도

허리케인 이재민들에게 스승님의 신성한 사랑이 전해지다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허리케인 이반은 그레나다 섬을 초토화시키고 가옥의 90%를 파괴한
 후에도 시속 165마일이라는 가공할 만한 바람을 몰고 자메이카 쪽으로 이
 동해 왔다. 다행히 허리케인의 진로가 서쪽으로 갑작스럽게 바뀌어 자메
 이카 섬을 빙거가긴 했지만 자메이카 남해안을 따라 피해가 발생했다.

스승님의 긴급 지시를 접한 플로리다 동수들은 구호 팀을 결성하고
 즉시 허리케인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고작 80km 떨어진 자
 메이카 북서부의 몬테고 만으로 출발했다. 이곳에서 구호 팀은 인터넷과 주
 민들을 통해 얻은 정보를 근거로 상황을 파악한 후 그 중에서도 가장 피
 해가 심한 네그릴 마을을 향해 서둘러 출발했다. 좀더 자세한 상황을 알
 아보기 위해 언덕을 넘어 해변으로 향하던 중 차가 물에 빠졌을 때 우연
 히 마을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동수들에게 지금 이재민에게 가
 장 필요한 것은 물과 음식, 피난처, 그리고 금전적인 도움이라며 이재민
 들의 상황에 대해 소중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교
 적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정부의 상황 대처

가 늦은 탓에 적지 않은 상점들이 허
 리케인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기초적인 조사를 마친 구호 팀은
 몬테고 만으로 돌아와 다른 조의
 동수들과 함께 만나 밀가루와 설탕,
 소금, 연유 등의 식품을 사는 일로
 구조 활동을 시작했다. 재난 지역
 으로 가던 중 타이어가 펑크가 났
 을 때 한 남자가 열심히 도와준 데
 이어 우리는 나중에 또 한 번 타이어
 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친절한 도움
 에 깊이 감동한 동수들은 사람들
 사이에 순수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



음을 깨닫는 한편 스승님의 무한한 자비를 느낄 수 있었다.

구호 팀이 첫 번째로 방문한 마을의 주민들은 스승님의 사랑이 담긴 도움을 받고선 큰 놀라움과 기쁨을 나타냈다. 한 할머니는 기본 식량과 위로금이 든 스승님의 자비로운 선물을 받고는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말 그대로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 할머니의 흥분된 모습에 다른 주민들도 무슨 일인지 알고는 몰려왔다. 이에 따라 구호 팀은 첫 번째 구호품 분배 작업을 빨리 끝마치고 몬테고 만으로 물품을 더 가지러 돌아갔다.

두 번째 마을에서 배분할 때에는 우리 활동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졌는지 물품을 받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구호 팀을 에워싸는 바람에 더 빨리 작업이 끝났다. 우리는 몬테고 만으로 돌아오던 중 길가의 한 상점에서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차를 세워 스승님의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선물을 받은 즉시 함께 받은 견본책자를 펼쳐 보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우리는 또 길가에서 비닐 천으로 햇빛을 가리고 잠자고 있던 노숙자와 또 다른 노숙자에게도 스승님의 선물을 전했다. 다음날 그 길을 지나다 보니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소다수를 마시며 이 '새로 생긴 재산'을 즐기고 있었다.

아름다운 열대의 섬 자메이카에서 재난 구호 활동을 마친 플로리다



동수들은 스승님이 우리 활동을 크게 축복해 주셨음을 깨닫는 한편 이번 기회로 스승님의 큰 사랑이 전달됐다는 것을 알고 모두들 큰 기쁨과 위안을 얻었다. 이 모든 일을 순조롭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무한한 자비와 축복, 안배를 베풀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본

속보: 태풍 도카게 이재민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다

2004년 10월 20일, 보기 드문 강력한 태풍 도카게가 일본 연안에 상륙해 심각한 홍수와 진흙 사태를 발생시켰다. 이재민들을 매우 염려하신 스승님은 일본 동수들에게 긴급 구호 팀을 조직해 이재민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마음을 위로하도록 급히 지시하셨다. 지시를 받은 일본 센터는 즉시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뉴스잡지에 실릴 예정이다.

도미니카 공화국 허리케인 재해 구호 활동 보도

역경을 헤치고 스승님의 자비를 전하다

LA 구호 팀 (원문 어울락어)

2004년 9월, 허리케인 찰리, 프란시스, 이반, 특히 푸에르토리코와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그 외 카리브 해 부근 국가에서 2천여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실종자를 낸 제인 등 허리케인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전세계를 경악시켰다. 칭하이 스승님은 이재민에게 도움을 주도록 동수들에게 지시하셨다. 이에 LA 센터 동수들로 구성된 구호 팀은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해 지원 활동을 펼쳤다.

LA를 출발한 구호 팀은 10시간의 비행 끝에 9월 21일 오후 도미니카의 수도인 산토도밍고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호텔을 예약하곤 호텔 직원에게 허리케인의 상황에 대해 물었다. 신의 축복으로 동수들은 젊은 접수원의 적극적인 안내를 받아 도미니카 남동부의 산 페드로 마코리스 시에 위치한 국가 민방위청(NCD)을 방문했다. 이곳은 국내의 재해 구호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구호 팀이 허리케인 이재민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달하자 NCD 관리자는 구호 활동을 도와주기로 했던 다른 단체가 마지막 순간에 취소를 했다면서 중요한 시점에 스승님의 구호 팀이 와 준 것에 매우 기뻐했다! NCD의 대표들은 기꺼이 우리와 함께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안내해 주었다. 하지만 300명이 사는 한 마을에 갈 때는 홍수와 이류 때문에 위험이 따르기도 했다.

9월 22일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 조사를 마치자 NCD에서는 트럭 두 대와 10여 명의 직원들을 시장까지 동행하게 해 쌀과 콩, 식용유, 설탕, 과자, 과일, 기저귀, 어린이 장난감, 비누, 표백제, 그리고 빗자루와 삽과 같은 청소 도구 등의 구호품을 사는 것을 도와주었다. 상점 주인은 우리가 재해 구호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도매 가격에다 10%를 더 할인해 주었다. 우리는 신속하게 두 대의 트럭에 물품을 싣고 예정된 첫 번째 마을로 향했다.

우리가 안전 대피소에 도착하자 지역 대표들은 주민들을 대피소 밖으로 부른 후 구호품을 받아 가



도록 했다. 지역 안전 요원과 NCD 직원들의 협조 덕분에 구호품 분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흥분된 모습으로 구호품을 받고 또 스페인어판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읽으면서 위안을 얻는 주민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스승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었다. 구호 물품을 나누어 준 후 우리는 트럭을 타고 산 페드로 마코리스 시로 돌아왔다.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오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많은 집들을 지나칠 때 주민들은 길가에 서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외쳤다. “브라보! 브라보!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우리는 이 먼 이국 땅의 형제자매들에게 행복과 위안을 가져다주신 스승님께 조용히 감사드렸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NCD 직원들과 함께 구호 물품을 가득 실은 트럭을 타고 두 번째 마을로 출발했다.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시장은 길이 위험하다며 경고했지만 우리는 단념하지 않았다.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구호 임무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자 시장은 우리의 안전을 빌어 주었다. 길이 망가져 있었기에 구호 팀은 물자와 사람을 한 트럭에다 싣고 이동하기로 했다. 마을로 향하는 진흙 길을 통과하다 본 많은 사탕수수밭은 허리케인으로 초토화되어 있었다. 때로는 낮게 드리워진 나뭇가지와 전선들이 트럭 위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고, 가는 동안 폭우가 내려 모두를 흠뻑 적시고 가뜰이나 위험한 여행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기도 했다. 또 진흙에 차가 빠지기도 했지만 스승님의 안내로 한 농부가 자청해서 우리를 트랙터로 마을까지 데려다 주고 진흙에 빠질 때마다 체인으로 트럭을 꺼내 주기도 했다. 진흙 길을 두 시간 동안 달리고 나니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은 어떤 정부 기관이나 민간 단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스승님의 구호 팀을 보고 뿔 듯이 기뻐했다. 마을 주민들은 식량이 떨어진 지 오래됐을 뿐 아니라 진흙 물로 갈증을 없애야 했다고 한다. 지난 여러 번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구호 물품을 네 분류로 나눠 배분했다. 첫 번째는 과자와 과일 등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받아 가도록 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쌀과 콩, 설탕, 식용유, 비누, 표백제 및 청소 도구 등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로 남녀별로 줄을 세워 나눠 주었다. 네 번째는 어린이들에게 줄 옷과 책, 장난감이었다. 이 외 아기가 있는 가정을 위해 기저귀를 나눠 주는 작은 구역도 하나 마련되었다. 분배 과정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배분을 다 마치자 트럭에 있던 구호품의 절반이 나간 상태였다. 근처의 아이티 이주민 마을이 도움도 못 받고 고립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날도 어두워지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구호 활동을 계속 진행했다.

보름달이 길을 밝혀 주는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마을에서 1시간 정도를 달려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다. 주위도 어둡고 필요





한 것도 많았을 텐데도 인내심을 갖고 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더 많이 요구하지 않는 주민들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 마을은 너무나 가난해서 네 다섯 살 되는 아이들조차 자기 몸 하나 가릴 만한 옷이 없었다. 비록 발은 진흙에 잠겨 있어도 천진무구한 미소를 띠고 있는 주민들은 마치 진흙 속에 있어도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연꽃을 연상시켰다. 구호품 분배를 마치고 나니 자정이 넘어 있었다. 우리는 흥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으로 호텔로 돌아오며 며칠 동안 계속된 구호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다음날인 9월 24일, 우리는 NCD를 방문해서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 직원은 산 페드로 마코리스에서 북동쪽으로 90km 떨어진 두 마을이 피해를 입고서도 다리가 무너져 길이 막혔다고 얘기하며 우리에게 도와줄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속으로 내면의 스승께 기도한 후 모든 사람들이 힘과 마음을 모은다면 갈 수 있겠다고 얘기했다. 직원들은 이 말에 매우 기뻐하며 뭐든지 필요한 도움은 다 제공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들과 함께 구호품을 구입하고 각종 일용품들을 챙기는 한편 다음날 일정을 짰다.

이재민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관계로 우리는 보다 경제적으로 곡물을 살 방법을 생각했다. 그래서 이전에 작은 포대를 샀던 것과는 달리 큰 포대를 구입한 후 그것을 다시 작게 나누기로 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대금을 치르고 다른 물품을 준비하는 동안 NCD 직원들은 대량으로 구매한 쌀을 NCD 센터로 운반해 효율적으로 재포장 작업을 시작했다. 우리가 NCD 센터로 돌아올 무렵에는 모든 물품들이 다 나누어져 두 대의 트럭에 실려 있었다.



이른 저녁에 모든 구호 물품을 싣고 출발한 우리는 밤 9시쯤 트럭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끝 마을에 도착했다. 우리가 찾아온 목적을 들은 이 마을 촌장은 다리가 끊겼

으니 최선책으로 자기에게 물건을 주고 가면 나중에 나눠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 구호 물품을 책임지고 나눠 주고 싶다고 말하며 신의 축복과 모든 사람이 합심해 도와준다면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촌장은 이 말에 자기 생각을 굽히고는 우리와 동행하기로 했다.

트럭이 무너진 다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거대하고 어두운 정글을 가로지르는 급류를 보고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젊은이가 다리 반대편에 나타났다. 우리는 스승님이 모든 것을 안내하셨다는 것을 알고서 기쁨에 넘쳤다. 급류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있는 청년에게 우리가 온 목적을 소리쳐 알렸다. 그는 우리가 자기 마을 사람들을 위해 식량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선 즉시 마을로 돌아가 촌장에게 이 반가운 소식을 알렸다.

우리는 밝은 달빛의 인도를 받으며 넘어진 나뭇가지를 이용해 임시 다리를 만들어서 구호 물품을 강 건너편으로 옮겼다. 당초 우리의 진심을 의심했던 첫 번째 마을 촌장도 나중에는 태도를 바꿔 가장 열심히 일해 우리를 감동시켰다. 물품을 옮길 때 그는 가장 물살이 세고 위험한 곳에서 우리 일을 도와주었다. 그동안 오토바이를 탄 젊은이에게서 소식을 들은 두 번째 마을의 촌장이 트럭을 끌고 도착해 주민들에게 나눠 줄 구호 물품을 옮겨 실었다.



구호 팀과 함께 밤샘 작업을 한 후 첫 번째 마을 촌장은 마을 주민들에게 마치 오래전부터 스승님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존경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스승님을 신실하게 소개했다. 감동적인 그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감동해마지 않았다. 분배 작업을 마쳤을 때 두 번째 마을의 촌장은 또 다른 마을에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려 주었다. 하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무너진 다리를 건너야만 했다! 이미 새벽 2시가 다 된 시각이었지만 우리 모두는 무한한 축복을 느끼고 그 격려를 받으며 다시 한 번 임시 다리를 건너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해 주었다. 모든 일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니 정오였다.

그날 오후 NCD에서 우리를 초청해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 주신 스승님께 감사를 표하고, 표창장을 내려 스승님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우리도 답례로 스승님의 대형 법상과 경서,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를 선물해 스승님과 인연 있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9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재해 구호 활동을 펼치는 동안 LA 동수들은 친절하고 열성적으로 일을 도와주는 많은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가는 곳곳마다 세세한 부분에서 스승님의 축복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편지

(원문 스페인어)

도미니카 공화국
산 페드로 마코리스 지방 정부
국가 민방위청 총리부

칭하이 무상사 귀하

조건 없는 도움으로 저희와 협력해 도미니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시고 동부 지역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04년 9월 25일
도미니카 공화국 산 페드로 마코리스

동부 구청장 라파엘 A. 메리노
지방서장 파블로 폴란코 M.



미국 플로리다 허리케인 재해 구호 활동 보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플로리다 구호 팀 (원문 영어)

일한 대상은 이동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재민들과 대화를 해보니 가장 시급한 것은 새는 지붕을 막아 줄 방수포였다. 이에 우리는 충분한 방수포를 준비해 9월 28일 각 조별로 포크, 하이랜드, 인디언 강 유역 및 마이애미 북부 연안 지역을 따라 돌면서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포크 카운티의 이민 근로자 지역을 방문해 방수포를 나누어 주다가 이들에게 물과 식료품, 일용품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들 물품을 구입하러 나섰다. 구매를 마쳤을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잘 늦은 시각이라서 우리는 다시 이민 근로자 마을로 돌아가 차 안에서 한 시간 반가량 명상을 하고 날이 밝자 물품 배분을 다시 시작했다.



최근 플로리다는 2004년 8월 13일부터 허리케인 찰리를 시작으로 이례적인 허리케인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다. 허리케인 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풍 가운데 하나로서 플로리다 전역을 그대로 강타했으며, 이어 짧은 기간 동안 강력한 허리케인이 3차례 더 일어나 전세계의 과학자들과 기상학자들을 경악시켰다. 그 중에서도 9월 26일 발생한 허리케인 지니는 그 절정을 이루었다. 한 철에 이렇게 강력한 허리케인을 여러 번 겪은 적이 없었던 플로리다 주민들은 전례 없는 현상으로 큰 근심과 혼란을 느껴야 했다.

이재민들의 안위를 염려하신 자비로운 스승님은 동수들에게 피해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셨다. 특히 집을 잃은 사람을 걱정하시며 각자 머물 곳은 있는지, 또는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보도록 하셨다.

9월 27일 동수들은 세 조로 나뉘어 태풍 지니가 휩쓸고 간 여러 지역을 방문했다. 그 결과 해변 주택 지역과 이동 주택 단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허리케인이 닥치기 전 일찌감치 대피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이 일부, 또는 완전히 파괴된 것을 발견했다.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들은 친구나 친척 집, 또는 호텔에 머물 수 있었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적십자사에서 제공하는 이재민 보호소를 찾아다녀야 했다.

우리는 불운을 겪게 된 이재민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할 방법을 찾았지만 적십자사에서는 자기네 보호소에 다른 단체들이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 피해를 입은 해변 주택 단지로 들어가는 길은 약탈을 막기 위해 군대가 봉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



다음날인 9월 29일, 구호 팀은 웨스트 팜 비치에 있는 이동 주택 단지로 출발했다. 목적지에 가까울 무렵 내리기 시작한 비는 도착했을 땐 빗줄기가 더욱 거세져 모두들 우의를 입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다. 이재민들은 구호품, 특히 가장 필요했던 방수포를 받고 고마워하며 기쁘게 선물을 받았다. 빗속에서도 기쁘게 봉사하는 동수들의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이어서 구호 팀은 다 함께 모여 인디언 강 부근의 또 다른 이민 근로자 지역으로 출발했다. 정부에서는 이곳의 한 가톨릭 선교회를 통해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정말 대단한 여성 안젤리나를 만났다. 가톨릭 선교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녀는 우리에게 서식을 작성하고 자기들이 정한 교회의 감독 아래 구호품을 전달하게 하는 다른 주 정부와 교회 행정원들과는 달리, 우리를 보는 즉시 정부 사무실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우리 차에서 직접 물품을 받아 가도록 주차장으로 가라고 알려 주었다.

안젤리나는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의 맨 앞에 서서 각 이재민들에게 우리 견본책자를 나눠 주기까지 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놀라운 장면이었다! 순수한 이민 근로자들은 구호 물품을 받자마자 스승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동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런 사랑의 교감은 그 여자 성인(聖人)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9월 30일과 10월 1일, 우리는 포트 피어스 연안의 이동 주택 주차장에서 구호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허리케인 지니의 거센 바람이 강타한 이곳에는 17개 구역의 주차장이 있었는데, 각 주차장마다 십수 가구에서 천여 가구에 이르는 이동 주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 조로 나눠 활동해야 했다.

당시엔 군대에서도 지붕을 덮을 비닐 방수포를 나눠 주기 시작하긴 했지만 긴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해서 이재민들이 바로바로 받을 수가 없었다. 또 연방 비상사 관리국(FEMA)과 기타 재난 구호 단체에서도 구호소를 설치해 식수와 열음, 기타 물품들을 공급했지만 줄이 길어서 몇 시간씩이나 기다려야 구호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도착해 방수포와 식료품, 식수, 방충제, 기타 일용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승님의 사랑을 전달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 염려하



는 존재가 또 있다는 것을 알고는 깊은 감동과 감사를 표했다.

대다수의 이동 주택 단지가 정전인 상태여서 동수들은 어두워지기 전 까지 일부 구획만 방문한 후 근처 동수의 집에 가서 쉬고 다음날 일을 계속해야 했다. 동수 집 가족들은 우리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기 바로 직전에 전기가 다시 들어와서 음식을 마련할 시간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었다. 마치 스승님께서 우리가 배고프고 지쳤다는 것을 아시고 먹고 쉴 수 있도록 안배하신 듯했다.

다음날 새벽 우리는 다시 조를 나누어 구호 활동을 계속했다. 한 수해 지역에서 만난 예쁜 할머니는 네 명의 손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 가족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다. 할머니는 구호품을 아주 고맙게 받으면서도 필요 이상은 받지 않으려고 했다. 우리의 도움에 깊이 감동한 할머니는 우리를 ‘신의 천사’라고 부르며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 “이 모든 일을 겪는 와중에 배운 것은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다고 웃으면서 얘기했다.

당초 예정한 지역을 다 돌고 난 후 구호 팀 각 조는 1,600명 이상이 살고 있는 대형 구식 이동 주택 단지에 모였다. 주민들은 우리를 무척 반기며 구호품을 기쁘게 받았다. 특히 매일 물과 얼음을 전해 주던 FEMA 트럭이 이날은 사정이 있어서 못 왔기 때문에 이 물품들에 대해 더욱 반가워했다. 이 지역을 관리하는 한 여성은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 물품들은 신이 보내신 것이라고 얘기했다. 우리 동수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환대로 보아 이들이 스승님의 사랑을 매우 강하게 느꼈음이 분명했다. 그들은 또한 우리 단체의 수행 방면에도 관심을 나타내며 어떻게 하면 연락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물었다. 얼마 후 열정적인 포옹과 안타까운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동수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음날 전기가 다시 들어온 지역이 늘어나고 FEMA와 다른 단체, 군대에서 구호 인원들을 파견해 이재민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자 동수들은 구호 활동을 일단락 짓기로 했다.

구호 활동을 했던 지난 몇 주를 되돌아보면 플로리다 각지에서 겪은



많은 따뜻한 추억들로 가득하다. 이번 허리케인 구호 활동은 이웃에 대한 스승님의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으며, 동시에 도처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향한 스승님의 가없는 자비심을 되새길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다. 게다가 스승님이 최근 몇 년간 플로리다에서 지내시는 동안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번 구호 활동은 동수들에게 더욱 뜻깊었다. 지구의 황금시대 원년을 맞아 플로리다가 이런 극적인 ‘업장 소멸’을 경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비심을 계발하고 신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끝없이 감사드린다.



파나마 홍수 재해 구호 활동 보도

수재민에게 희망의 불빛을 밝히다

마리차 레옹/ 파나마

2004년 9월 24일 오전, 파나마 지역에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이 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지역에 막대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위험스러운 홍수가 닿는 곳마다 모두 휩쓸려 내려갔고 가옥 전체가 떠내려갔으며 17명이 익사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는데,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어머니나 친척에게 안겨 있던 어린이들이었다. 홍수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한 젊은 여성은 15세 된 딸과 함께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동안 불어난 강물이 친정어머니와 두 아이를 휩쓸고 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고 얘기했다.

동수들은 재해 소식을 접하자마자 신속하게 옷과 식품을 수재민들에게 기부한 후 10월 4일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스승님의 구호 기금을 전해 받은 동수들은 식품과 유아복, 아동복, 성인복, 식수, 매트리스 등의 구호 물품을 구입한 다음 파나마 센터에서 1만 개에 가까운 꾸러미를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10월 8일 스승님의 축복 속에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구호 팀은 수재민에게 구호 물품을 전하는 한편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수재가 난 지역은 빈민촌인 데다 홍수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심각해 많은 사람들이 피부병에 감염돼 있었다.

동수들이 방문한 몇몇 수해 지역은 홍수가 난 지 수일이 지났는데도 어떤 단체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주민들은 스승님의 도움에 더욱더 감사드렸다. 우리는 프라도스 델 에스테, 엘 판타날, 누에바 에스페란차 아리바, 누에바 에스페란차 아바호, 몬테리아, 팔로 알토, 토쿠멘, 카브라 강 연안의 여러 정착지 등지에 구호품과 매트리스를 전달

했다.

그리고 나서 10월 11일, 라스 가르자스와 라스 미레야스 등의 마을에 또다시 홍수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동수들은 지체없이 이 마을들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 19세대 이상이 집과 전 재산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재민들이 관할 관청에서 마련한 두 개의 수용소에 머물고 있었기에 그곳에서 준비해 온 구호 물품을 나눠 주었다.

두 마을을 떠나 돌아오던 중 운전을 맡았던 사형이 무심코 홍수 피해를 입지 않은 곳으로 차를 돌렸는데, 알고 보니 스승님의 안배였다. 이 지역이 극도로 가난한 곳이었던 것이다. 그 중 한 가정은 정말 상황이 참담했다. 6주 전에 남편을 잃고 직장도 없는 아이 어머니가 여덟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하고 있었다. 동수들은 그 가정에 옷과 식품, 식수 등을 주고, 맨바닥에 자며



생활하던 그들에게 침대도 두 개 만들어 주었다. 이 가족은 모두 스승님께 무척 감사해했다.

구호품을 받은 파나마 수재민들은 모두 마음속 깊이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신의 축복을 빌었다. 또한 그들은 우리 구호 팀이 자신들의 집까지 찾아와 위로를 해준 유일한 단체라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구성원들이 사랑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신의 은총이 가득한 구호 물품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거의 보름간 구호 활동을 하는 동안 구호 팀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으며, 신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점을 행복으로 여겼다. 그들에게 큰 슬픔 속에서도 신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희망의 빛을 가져다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파나마 동수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자매들을 도울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는 한편 스승님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을 일깨워주시길 기원했다.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한 가운데 서로 화합해가며 함께 일함으로써 스승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체득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도 스승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매체보도 



남극의 오존층 구멍이 줄어들었다!

(원문 영어)

[뉴질랜드] 국립 물과 대기 연구원(NIWA)에 따르면 현재 남극 위에 벌어진 오존층 구멍이 20%가량 줄어들었다고 한다. 2003년 2,900만 평방 킬로미터의 기록적인 크기에서 올해엔 2,400만 평방 킬로미터로 줄었다고 뉴질랜드 과학자들은 말했다.

지표상에서 9, 10마일 상공에 분포되어 있는 오존층은 피부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한 자외선을 걸러 준다. 냉장고와 에어로졸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염소와 브롬 등의 공업용 화학 물질들은 오존 분자를 깨뜨려 분산시키기 때문에 오존층을 얇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NIWA 과학자 스티븐 우드 씨는 “향후 몇 년 동안 오존층이 축소, 혹은 덜 심각해졌다는 것을 관찰해 봐야만 확실히 오존층이 복원되고 있다

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1987년 몬트리올 협약에서 180여 개국은 오존에 해를 입히는 100여종의 화학 물질에 대한 사용을 점진적으로 금지시키기로 한 조항에 서명했다. 이 조항이 오존층 회복이란 결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ctv.ca/servlet/ArticleNews/story/CTVNews/1096647426668_37/?hub=SciTech



스승님의 당부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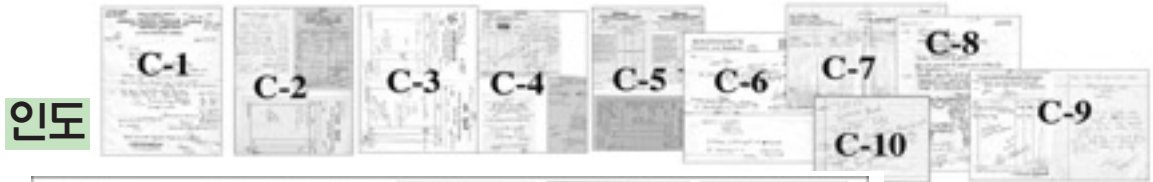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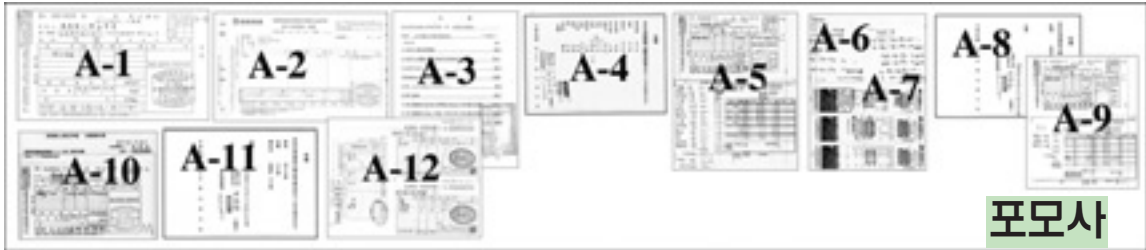
가능하면 태양 에너지나 기타 형태의 녹색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차를 여러이 함께 이용하거나 하고, 언제나 불필요한 연료와 가스, 전기의 사용을 줄이며, 같은 밝기나 더 밝은 절약 전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십시오.

2004년 9월과 10월 청하이 무상사의 전세계 재해 구호 활동 지원 지출 일람표

(단위: U.S.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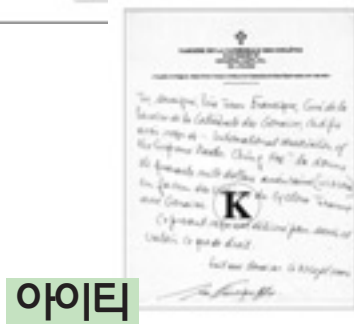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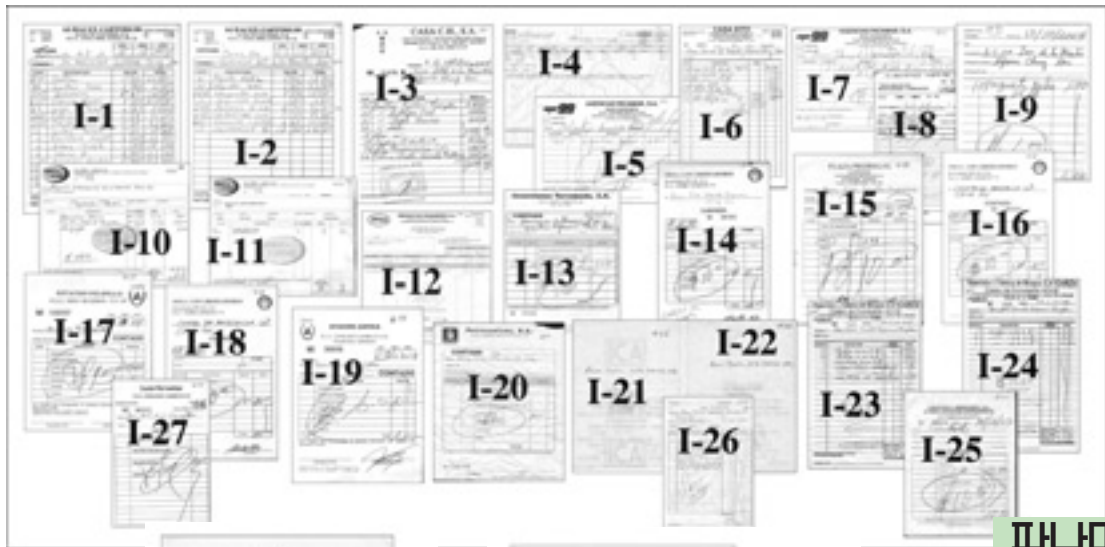
나 라	재 해	구 호 내 용	금 액	부 록
포모사	태풍	물, 식품, 위로금, 학비 보조금, 컴퓨터 설비, 카메라, 침낭, 옷, 세제	\$15,865.98 (541,030.00 NT)	A-1~12
중국	홍수	식량, 옷, 이불, 신발, 운송비, 손전등, 문구, 포장 재료, 위로금	\$20,374.33 (167,819.30 위안)	B-1~23
인도	홍수	식량, 세제, 텐트, 매트, 문구, 책, 포장비	\$30,000.00 (1,350,001.00 루피)	C-1~10
러시아	학교 인질 사태	옷, 위로금	\$34,110.00 (996,000.00 루블)	D-1~5
그레나다	허리케인	100명에게 위로금 전달	\$10,000.00	E-1~5
자메이카	허리케인	식량, 위로금	\$10,027.00	F-1~8
도미니카 공화국	허리케인	식품, 장난감, 세제, 기저귀 미국 적십자사를 통해 미화 1천 달러 전달	\$28,679.00	G-1~8
미국 플로리다	허리케인	물, 식품, 세제, 일용품, 신발, 방수포, 냉장고, 담요, 운송비	\$14,646.37	H-1~20
파나마	홍수	식품, 장난감, 일용품, 매트리스, 문구, 운송비, 침대 제작 재료, 잡화 (종이 상자, 인화비, 서류철, 필름)	\$7,900.00	I-1~27
수단	내전	미국 적십자사를 통해 난민에게 4만 달러 지원*	\$40,000.00	J
아이티	허리케인	아이티 고나이스 대성당 신부를 통해 재정 지원*	\$40,000.00	K
총계			US\$251,602.68	

* 현지 상황의 제약에 따라 수단과 아이티에서는 구호 물자 및 위로금을 이재민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었지만 몇몇 자선 단체를 통해 기금이 전달돼 이들 나라의 국민들도 스승님의 자비로운 혜택을 입게 되었다.



그레나다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포모사 24시간 인터넷 TV 방송국-영어,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SM 경서 팀)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us> (미국-다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불어, 영어, 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 (미국-스페인어)
<http://www.CauThongVoiThuongDe.com>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다국어 지원)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Real Audio 지원-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radio/aulac/> (캐나다 Real Audio & MP3-어울락어 유니코드)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quanyin.narod.ru/> (러시아-러시아어)
<http://www.contatodiretocon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http://www.godsdirectcontact.us/com/sb/>
<http://www.godsdirectcontact.com/sb/index.html>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ejemplar>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244-92-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rkinafaso@yahoo.fr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35564987 saintearthmail@yahoo.co.uk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razahidah@hotmail.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smchmauritius@intnet.mu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Ms. Dieketseng Napo	27-83-456-3968 dnapo@siza.co.za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backhome25@hotmail.com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4424 55-91-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erwinserrano@terra.com.br 55-81-326291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몬트랄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vif.com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l@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vif.com
오타와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연락인 사무실	torontoc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shaw.ca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diachadicha@hotmail.com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 D.F.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cmpkamelkamel@hotmail.com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center@contactodirectocondios.org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fo	52-8-379-0897 mt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mrleone@hotmail.com			ekalbekim@yahoo.com
★ 파라과이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georgiacenter@hotmail.com
		ec_py2002@yahoo.com.ar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 페루			하와이 :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센터	1-808-735-9180
		cuscocentro@yahoo.com			hawaiictr@hotmail.com
리마	센터	51-1-4716472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DorothySakata@aol.com
		edyter@viabcp.com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caominhtran@yahoo.com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punocentroperu@yahoo.es			Duchanh@aol.com
트루히요	Mr. & Mrs. Ra l Seugra Prado	51-44-221688	켄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rsp_trujillo@hotmail.com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 살바도르					Fuji.Nguyen@ky.gov
산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quijano_manuel@yahoo.es			jlfontenot@hotmail.com
★ 트리니다드 섬			매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r. Ray Alibocus	1-868-637-1054			marylandcenter@yahoo.com
		alibocus@tstt.net.tt	매사추세츠 :		
★ 미국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애리조나 :	센터	1-602-264-3480			shinemound@earthlink.net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Ms. Gan Mai-Ky	1-508-791-7316
		kennynngoaz@hotmail.com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아칸사스 :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미시간 :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bobedj@cox-internet.com			mading02000@yahoo.com
캘리포니아 :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quachmn@yahoo.com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미주리 :		
		tlin54@hotmail.com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MSteck5208@aol.com
		SanGabriel99@hotmail.com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chen@umr.edu
		gmartin0999@hotmail.com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croberts@lps.org
		saccenter.ca@usa.com	네바다 :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quanyinsd@juno.com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c_newjersey@yahoo.com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JohnChou@ymllusa.com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sfcenter@hotmail.com			anawarskas@hotmail.com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뉴욕 :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Sophie.lapaire@sun.com			dong@phys.columbia.edu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Edgar-Teresa@worldnet.att.net			dcouch@rochester.rr.com
	Mr. Loc Petrus	1-510-813-2300	노스캐롤라이나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petrusl.2k4@gmail.com	오하이오 :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ohiocenter@yahoo.com
		torahi@ureach.com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플로리다 :					wisdmeze@aol.com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Thaidbzad@msn.com			ltran2292@yahoo.com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오리건 :		
		tls1095@earthlink.net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캘리포니아	Mr. Ashok Sinha	91-33-655-6741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shiva@cal.vsnl.net.in	
	youping320@yahoo.com	★ 인도네시아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529-3114	발리	센터	62-361-231-040
	DiepAshleyPa@aol.com		smch_bali@yahoo.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Mr. Agus Wibawa		62-81-855-8001
텍사스 :		wibawa001@yahoo.com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자카르타	센터
	jjdawu@yahoo.com		smch-jkt@dnnet.net.id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Mr. Tai Eng Chew		62-21-6319061
	trandungdean@yahoo.com		cte@envirotec.co.id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Ms. Lie Ik Chin	62-21-6510715
	DallasCenter@yahoo.com		herlina@ueii.com	
Mr. Tim Mecha	1-972-395-0225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t.mecha@comcast.net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Mr. Weidong Duan	1-972-517-5807		ketut@sinarma.com	
	water96@yahoo.com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Mr. Jimmy Nguyen	1-972-206-2042		yudi_wartono@telkom.net	
	JimmyHNgyuen@yahoo.com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smch_medan@hotmail.com	
	cadamson@houston.rr.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ahimsasb@indosat.net.id	
	cuc-le@houston.rr.com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harry_l@sby.dnet.net.id	
	robert.yuan@hp.com	Mr. Madyana Putra Augustinus		62-274-411-701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t.adianingtyas@lycos.com	
	lethong@hotmail.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247
버지니아 :	센터		ya05@netvision.net.il	
Mr. & Mrs. Hua Phi Anh	1-703-941-0067	★ 일본		
	1-703-978-6791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anhhlly@hotmail.com		divinalv@nth.biglobe.ne.jp	
*버지니아비치	센터		81-470-209127	
	1-757-461-5531	다테야마	센터	tateyama_lg@yahoo.co.jp
	liem_le23502@yahoo.com			81-90-6104-5770
워싱턴 :		도쿄	Ms. Yukiko Sugihara	lotus@sky.plala.or.jp
*시애틀	Mr. Ben Tran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benptran@aol.com		y-plus@f6.dion.ne.jp	
Mr. Edward Tan	1-206-228-8988	★ 한국		
	edtan@usa.com	출판사		031-772-9250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chinghai@unitel.co.kr	
	1-307-332-7108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sumaemc@yahoo.com		houmri1@kornet.net	
★ 푸에르토리코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카뮈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goldenseoul@yahoo.co.kr	
	1-787-262-1874		02-795-3927	
	disnalda@caribe.net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 아시아 ***			chinghaibusan@hanmail.net	
★ 포모사			송호준	051-957-4552
타이베이	센터		황상원	051-805-7283
	886-2-2706-6168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tpe.light@msa.hinet.net		shc5824@hanmail.net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신현창		063-254-5824
	shloh@ndmctsgh.edu.tw	인천 센터		032-579-5351
미야오리	Mr. & Mrs. Chen, Tsan Gin	이재문		032-244-1250
	886-37-221618	대구 센터		053-743-4450
Mr. Chu, Chen Pei	886-37-724726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가오슝	센터			
★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7495534			
	852-26378257			
	joyandlove3@hotmail.com			
★ 인도				

*** * * 유럽 * *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Mr. Shih-Tsung Lu		43-699-12272892
		sound@gmx.at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1-6-11-240-115
gotske@yahoo.fr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old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zeljko@mindless.com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prague-center@chinghai.cz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Chinghai@chinghai.cz

★ 덴마크

my@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kolumbus.fi

★ 프랑스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파리	센터	33-1-4300-6282
	Ms. Lancelot Isabelle	33-1-7069-3210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pureocean@web.de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3-4846374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_source@t-online.de

★ 그리스

아테네 Ms. Vicky Chrisikou 30-210-9321920
luckychrisikou@yahoo.gr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Mr. Nguyen Ngoc Trung	00-31-626478716 Quan-Am@chello.nl	런던	센터 Mr. Nicholas Gardiner Mrs. C. Y. Man	pnl@matters19.freemove.co.uk 44-2089-773647 44-1895-254521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스토코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janet.weller7090@ntlworld.com
	Mr. Lux Tamas	36-304273364			
	Ms. Dora Seres	36-1379-1924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기요르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stmchwo@hotmail.com
★ 아일랜드			★ 스코틀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dublinquanyin@yahoo.co.uk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노르웨이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osloqy@online.no			
★ 폴란드			*** 오세아니아 ***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91-4874953 gingal@wp.pl	★ 호주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_pl@yahoo.com	에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de@hotmail.com
★ 포르투갈			브리즈번	센터 Mr. Gerry Bisshop Mrs. Tieng Thi Minh Chau	briscentre@telstra.com 617-3847-1646 617-3715-7230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ctieng@telstra.com
★ 러시아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hotmail.com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마이런베이/ 노던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ray_jule@bigpond.net.au
★ 슬로베니아			캔버라	Mr. Hoang Khanh	61-2-6259-1993 smcanberra@hotmail.com
루블라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janez.pavlovic@siol.net	멜버른	센터 Mr. & Mrs. Rob Nagtegaal	melbsmch@aol.com 61-3-5282-4431
마리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rosrobey@aol.com
★ 스페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Madridcenter@yahoo.es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bigpond.net.au
	Ms. Lidia Kong	34-91-5470366	퍼스	센터 Mr. David Robert Brooks	61-8-9242-1189 61-8-9418-6125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			daveb@iinet.net.au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Mr. Ly Van Tri		61-8-9242-2848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 스웨덴			★ 뉴질랜드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yahoo.com	오克蘭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sweden1@tele2.se		Mr. Peter Morrin	642-172-2776 ptr@ihug.co.nz
말뫼	Mr. & Mrs. John Wu	46-40-215688 john.wu@bolina.hsb.se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hotmail.com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hamnzcont@yahoo.co.nz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klein@tiscali.ch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 영국					
입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m@ntlworld.com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 712 <영어+23개 국어 자막>

동물들의 신성한 지성

2001. 6. 5. 미국 플로리다 단체명상

내용 요약: 스승님은 앵무새와 강아지 등의 동물들을 데려와 돌보시고 계신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스승님의 가없는 사랑과 세심한 관찰력은 어떻게 동물 친구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지 일깨워 주고 동물의 영성과 충성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스승님의 말씀을 통하여 동물의 감정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DVD 719 <영어+24개 국어 자막>

나쁜 습관 극복하기

2001. 6. 9. 미국 플로리다 단체명상

내용 요약: 스승님은 이 강연에서 3주만 있으면 중독에서 벗어나고 나쁜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하신다. 또 이 세상에 부정적인 힘이 존재하는 까닭과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대처하는 방법, 모든 깨달은 스승들은 같은 법문과 같은 교리를 가르치지만 중생을 구함에 있어서는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더불어 "이번에 천국에서 모든 중생을 돕는 창고 개방 세일을 하는데, 스승의 힘은 신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도울 것입니다."라고 격려했다. 스승님의 격려 어린 이 말씀은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수행자임을 일깨워 주신다.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

MP3-CR15 <중국어>

★ 1994. 5. 22.-27. 포모사 타이베이 국제 선철

1. 생명의 권리를 존중하라
2. 진정한 보시
3. 부처의 전생
4. 방편법을 함부로 가르치지 마라
5. 노자와 장자의 정신

★ 1994. 10. 23.-25. 포모사 시후 센터 청하이데이 선철

6. 백성을 사랑한 부지런한 왕자/ 인생은 연극 무대

★ 1994. 12. 31.-1995. 1. 2. 포모사 시후 국제 선철

7. 신의 은총을 받는 법
8. 스승님 탄생에 얽힌 신기한 현상
9. 한국 동수들과의 수행 문답



새로 나온 책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아랍어판>



포모사

러시아



중국



수단



자메이카



그레나다



인도



도미니카 공화국



최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재해 소식을 접하신 청하이 무상사는
이재민들의 안위와 고통에 관심을 갖고
각국 동수들에게 재해 지역에서 전심전력을 다해
구호 활동을 진행하도록 특별히 지시하셨다.

